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7.8**월호



땀을 흘리는 교사

— 여름성경학교·수양회·전도활동에 붙여 —

무더운 여름, 교회의 모든 교사들은 시원한 물가나 산으로 피서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계절 학교의 말씀교사로 사역케 된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성경말씀과 친교를 나누며 수양회와 농어촌 전도활동을 통해 지역 복음화 활동에 모두가 힘을 집약시킨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총회 교육부가 6년차 싸이클에 의해 배우게 되는 총주제로서 「예수님」「성령님」「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지능개발에 따른 재질겨우기와 찬송의 「하모니」를 배우게 된다.

특별히 일반 주일학교에서 모자랐던 성경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여유있는 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피차 정다움게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다.

또 한계능력의 인간이 망각과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신앙생활화의 규범을 재훈련을 통하여 다시 인식케 하고, 그리스찬의 생활 중에 잠시 이탈했던 형제들을 다시 초청하여 믿음의 화신을 재검검시킨다.

여름행사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전해에 부족했던 교육의 문제점을 계속 답습하게 되면 무답고 긴 여름날의 모처럼의 황금의 시간이 저루하게 되고, 물질적 손해와 비교육적인 요소만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행사를 열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대신 전달할 교사들이 철저한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우리 교사들이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사장습회와 교역자들이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적극 참석해서 빈틈없는 공과준비를 하고, 교수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우물쭈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치고 말씀에서 나타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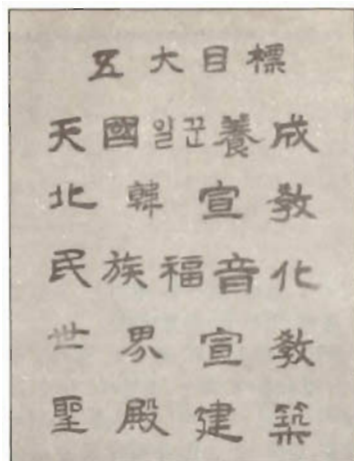
주교 교사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착각해서 어떤 댓가를 요구하는가, 바램에 의지해서 교수한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하고, 상급의 유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아멘」 신앙의 정립이 시급하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우매한 교사가 되지 않도록 땀을 많이 흘리며 열심히 말씀을 교수하는 모든 교사들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여름이 인기전술이나 체면에 의지한 비성경적인 교육기간이 되지 않도록 온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로 적극 후원하고, 사명을 맡은 교사들은 적극성을 띄어 양떼를 먹이고, 목양받는 학생(주일학교 학생들)들은 열심히 주님의 심오한 뜻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충현」이 되도록 힘쓰면서 무더운 여름을 식히는 청량제의 역할을 다하는 교사와 관련자들의 깊은 각성을 제삼 촉구해 보는 것이다. **홍익**



월간 증현
The Monthly Chung Hyeon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임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0권 제7호 · 통권 101호

1982년 7·8월호 차례

- ☐ 권두언 / 땀을 흘리는 교사 손경수 · 2
☐ 이달의 말씀 / 초대교회 처럼 김창현 · 4

☐ 특집 ① : 여름행사를 말한다 ☐

- 주교교육 발전에 기여하자 이양우 · 6
- 수양회에 임하는 자세 김양래 · 7
- 황무지 같은 심령에 생수가 넘치도록 남성호 · 9
- 크리스찬의 휴가선용 이송근 · 10
- 하절기의 건강관리 우기전 · 11

☐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⑥ : 역사관

- 구속사적 역사관 김명혁 · 14
- ☐ 김장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⑦
•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김창현 · 18
- ☐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⑬
• 칼빈주의 정치관 김하진 · 20
- ☐ 신학논단 ②
• 복음과 전도 조영길 · 22

☐ 특집 ② : 농어촌교회교역자 초청수련회 ☐

- 한국농촌교회 자립과 성장의 길 민정웅 · 24
- 복음전도전략 장정일 · 26
- 성경연구 및 자기 개발 장시춘 · 29
- 성경강해 - 은혜를 받자 정문호 · 30
- 심방과 실제 구명신 · 32

- ☐ 편집실 칼럼 / 소그룹성경공부 김종주 · 13
☐ 물맷돌 / 하나님의 소원 34
☐ 신간안내 / 성공비결 : 동기의 기적 조지 원 · 21
☐ 찬송가 감상 / 자비로운 주 하나님 김하진 · 34

- ☐ 기관소개 / 산업전도 교육부 35

- 선교사 · 선교지 소식 36 교계소식 38
 이달의 교우동정 39 교회소식 40
 7월의 행사 42 편집후기 42



표지설명/올해에도 제철학교와 수양회 그리고 농어촌 전도봉사대 파송 등의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름행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수 많은 성도와 교사들이 1년에 한번뿐인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땀흘려 봉사하는 열의에 우리는 머리를 수그릴 따름이다. 사진은 지난해 본교회 전도대의 활동내용을 집약시켜 본 것이다.

□ 이달의 말씀

초대교회 처럼

〈행 4 : 32 - 37〉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행 4 : 32)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충만히 끼치고, 불신세계에는 복음의 빛과 소금을 전해 주면서 후세에 복을 물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개인도 잘되고 교회도 받드시 부흥이 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한없이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옥에 갇히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승리하며 부흥하여야 되겠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배워 실천에 옮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1.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교회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행 4 : 32)

사도행전은 15나라와 지방에서 많은 교인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지방의 말을 하는 가지각색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고 그렸습니다. 우리 중천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너도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가지 마음을 가지셨는데 ① 온유한 마음 ② 겸손한 마음 ③ 희생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와같이 희생 봉사하는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 초대교회는 재산관이 정립된 교회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행 4 : 32)

땅위에는 “내 돈, 내 집, 내 밭... 내 것”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네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① 도적의 마음을 가진 사람, ② 물질에 쫓이 분명한 사람, ③ 물질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④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 등인데 우리는 네 번째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다 됩시다.

3)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이 목회를 바로 한 교회입니다.

4)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책임을 잘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내 몸보다, 내가 죽보다 내 재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는 주의 종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2.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하였습니까?

1)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2) 영육간에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꾀절하거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3) 몸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병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4)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총동원을 하니까 원수가 손을 대려다가 손을 빼게되니 승리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멸시하던 무리들이 '안되겠다'하고 점점 물러섭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성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충현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읍시다.

•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하려는 재산관을 가집시다.

• 그리고 충현교회는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됩시다.

• 그 다음에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일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여러분의 영육이 부자가 되고 몸들도 튼튼해지고,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승리와 성공의 복이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주교교육” 발전에 기여하자

—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



이 양 우 강도사

(초동부 지도)

충현교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올해로서 제29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회 설립과 동시에 시작된 어린이 성경학교는 충현교회와 함께 질적 양적으로 성장, 발전되어 왔다.

올해 유·초동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의 주제는 총 주제가「고마우신 하나님」이며, 유년부 주제는「고마우신 예수님」이고, 초동부는「고마우신 성령님」이다. 기간은 1982년 7월 19일(월)부터 7월 22일(목)까지 4일간 본교회에서 「어린이 새신자부」와 「유년부」, 「초동부」 3부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제 제 29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맞이한 오늘, 초동부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필자는 무엇인가 좀 더 알찬 성경학교가 실시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1. 성경학교는 성경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해야 하겠다

이번에도 여름휴가를 만남하면서까지 어린 영혼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실 교사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성경학교가 좀 더 성경학교답기 위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초동부들 들어 소개해 보면,

① 「총회교육부」에서 발간된 「공과 공부시간」 30분은 각 학년을 남녀 2개반씩 나누어 총 6개반으로 재편성하여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철저한 공부를 실시하려고 하며,

② 또 각 학년, 반별로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동참하는 실제적 성

경읽기 및 성경연구를 위해 「요한 일서」를 매일 1장씩 읽으면서 성경연구 문제를 풀어보는 성경 연구시간을 따로 30분간 더 배정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한 어린이 전도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괴리현상」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

오늘 20세기의 사회적 문제, 특히 도시화로 인한 「군중 속의 고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 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들은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키 위해,



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실제적 성경읽기와 성경연구 훈련을 통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5대 사명중 하나인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처럼 활발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① 「소그룹 운동」을 통한 철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② 특히 성경학교나 수양회를 통한 참된 대화와 친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대화와 형제애를 가진 기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③ 그래서 유년부와 초동부에서

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교사와 학생이 같이 도시락을 지참해 오도록 하여 대화와 형제우애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④ 또 성경 읽기와 성경연구시간 끝에 「반별 기도회 시간」을 넣어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배려하였다.

3. 「당회」를 위시한 전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5대 사명」(① 예배 ② 전도 ③ 교육 ④ 성도의 교제 ⑤ 봉사)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막중하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교육의 철저화를 명하셨고(신 6:4~9), 우리 구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삼는 「교육적 사명」을 자기의 몸된 교회에 「지상명령」으로 주셨다.(마 28:16~20).

주일학교 교육은 한국 교회와 우리 총현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한 바

가 많다. 우리 총현교회만 생각하더라도 한국 보수교회들 중 모범적인 기독교 교육의 실시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 난제 때문에(장소와 시간의 제약) 크게 발전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성전 건축」 및 당면한 선교와 전도사업에 교회가 온 정성을 쏟고 있지만 한국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주일학교 교육」의 실적 양적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물리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100년대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결코 중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의 관심과 필요불가결한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올해 교회내의 전도와 교육 예산의 지원 비율을 보면 교육 예산이 전도 예산의 1/10에 불과한 현실이다.

물론 16부 주교의 자체 예산이 있지만, 이러한 심한 예산의 불균형은 「주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잘

못된 인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과감한 「의식의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부디 1982년도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각 신앙수련회(수양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강단마다 세우시는 주의 사자들과 교사들 위에 말씀과 성령,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주의 양떼들을 부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환하게 펼쳐지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김 양 래

□ 특집 ① : 여름행사를 말한다

수양회에 임하는 자세

— 중고등부 하기 수양회를 이렇게 —



김 양 래 전도사

(새신자부지도)

이제 한국교회와 총현교회에서 수양회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시금 말한다. 수다스럽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다. 이만큼 수양회가 우리 교계에 보편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회(혹 Camp)는 아직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남겨 두고 있다.

금년 하기 수양회의 준비 강습회만 보더라도 수양회의 목적, 의의,

필요성 주제에 따른 교육설정의 이해, 세부적 방향 지침 등 원리적 접근이 없이 몇가지의 기교와 교수법 강의, 학생 심리 이해, 레크레이션 지도 등 기능적 준비 교육만을 하므로 실질적 목적으로 가는 효과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행사로서 수양회가 끝나게 하는 비효과적 준비 교육에 그치고 말았다. 목적과 방향이 없는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

련인가?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는 잘못을 분명히 한해 한해, 차근 차근히 개선해 나아가야 하겠다.

어찌 되었든 내게 제목이 주어지고 편의상 내용도 “수양회에 임하는 자세를 중심으로(중·고대상) 주어졌으니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수양회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경건, 열심, 성실, 충

성... 등 이와 같은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언어는 수양회를 임하는 자세에 구체적 행동원리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무자에게 직접적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무자와 수양회 계획의 전체와 유기적 조화를 가지며, 효과적 결과로 인도하는 몇몇 최소의 기초적 행동원칙이 필요하다.

교사로서의 자격 — 지도력, 헌신적 자세, 인격, 학생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능력, 특별히 수양회에 대한 바른 이해 등 — 이 준비 되었다면 몇 가지 교사의 역할을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1.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교실에서의 내용과는 좀 다른 넓은 의미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신뢰받는 교사일수록 학생들이 모르는 모든 것과 신기한 것을, 신임하는 교사에게 물으러 올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기독교 교육의 초점에 맞추어 지도하려면 성경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학습에 있어 복합적으로 상세히 지도할 점은 지식이 기형적으로 성장되면 도리어 한 생명을 잘못되이 만들 수도 있다. 한 줄기 식물이 잎과 줄기가 튼튼해지지 못하면서 키만 자라나면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을 폭넓게 생각하고, 자신을 지도자로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폭있는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겠다.

2. 친구로서의 역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살펴보면 귀중한 친구의 관계를 말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아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말씀이다. 한 교사가 학생을 친구로 삼아 모든 것을 말하여 주고, 또한 학생이 교사를 친구로 받아 모든 것을 말하고 스스로 없이, 모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도록 해야겠다. 학생의 삶과 그 놀

이 속에 혹 깊은 대화 속에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도록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3. 부모로서의 역할

딤후 1장 2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다. 학생들이 가정을 떠난 Camp 기간 중에는 더더욱 이 역할에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모든 어려움을 보살피 주어야 하며, 먼저 일어나며 늦게 잠들고, 학생들의 의, 식, 주를 책임지던 부모의 심정과 수고로 분명히 돌아가야 한다.

4. 지도자로서의 역할

많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확실한 규칙을 사전에 제시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해야 한다. 수양회 전체의 흐름과 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그들을 한 걸음씩 움직이게 하되 너무 지시적이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무시하면 안된다. 지식이 삶의 경험 가운데 스스로 바르게 체험되도록 인도해야만 한다.

5. 협력자로서의 역할

모든 지식이 구체화 되는데 필요하다. 교실에서 귀로만 듣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실천되는 봉사, 인내, 협동, 섬기는 생활, 사랑의 실천 등이 나타나도록 교사가 본을 보이며 협력하도록 지도하고 또한 함께 협력한다. 개별 활동, 조별 활동 또는 모든 연구 활동도 협력하여 비효과적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평소 가르침에서와 같이 교회의 유기체적 조력이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며 그 기쁨의 크기를 체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와 이웃이 누구인가를 교사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6. 상담자로서의 역할

상담의 기능에 대하여는 특별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여

야 한다. 학생들의 상담 내용은 그들의 학습이나 지식에서 나타나는 경우보다 생활 자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을 주의해서 살펴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양회 기간중 많은 교사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주어진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학생이 상담을 하러 찾아 올 때를 기다리느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물론 학생이 찾아 오는 경우와 예도 있다. 그러나 성경적 방법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간 예가 더욱 많다. 또한 상담의 영역을 치료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정신위생적 영역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상담의 많은 영역이 어떤 문제점이나 고민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상처가 심하여진 경우이다. 이것을 치료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문제점으로 빨리 들어가기 전에 학생의 상태를 관찰하고 먼저 발견하여 상담하고 일상 대화나 질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학생의 관심이 무엇이며 그들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아직 미흡한 점이 더 많으나 몇몇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는 교사 자신들의 역할을 바로 알고 있으므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사 여러분은 준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양회에서 배우는 것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수양회를 행사로서 준비하고 집행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교육적 특수 효과를 위해 원리를 연구,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수양회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정리해 봄이 어떠하겠는가?

황무지같은 심령에 생수가 넘치도록

— 하기 전도 봉사를 이렇게 —



남 성 호 목사

(전도위원회 내지 분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저희 충현교회가 하기 전도대를 구성하여 봉사한지도 어언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난 해에도 1차(7.27~31까지) 2차(8.17~21까지)로 나뉘어 강원도, 충청도 각 지역에 비지 땀을 흘리면서 전도대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마게도냐의 손짓이 전국 각 지방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명자들을 선택하여 파송하려고 합니다.

1. 전도대원의 구성

1) 먼저 충현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 중에 특별히 전도에 사명을 가진 자로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2) 특별히 북한선교특공대원(8대 $8 \times 4 \text{명} = 32 \text{명}$)과 선교주일학교(3대 $3 \times 4 \text{명} = 12 \text{명}$), 대학부 학생(2대 $\times 4 = 8 \text{명}$), N.M.C(New Mines in Christ, 1대 $\times 4 \text{명} = 4 \text{명}$) 청년회에서 1대 $\times 4 = 4 \text{명}$ 과 교역자 12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3) 각 대원들은 철저한 훈련을 거친 신앙의 용병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하기전도대원들을 통하여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단 대원훈련은 북한특공

대 훈련, 선교훈련 등등으로 준비됨)

2. 하기봉사 시기

1)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으로 다양하고 건전하게 세웠습니다.

2) 그러므로 7월19일부터 8월20일 까지 5차로 나누어서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직장이나 개인에 지장이 없으면서 마음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3) 이번 하기전도대 시기는 A11 Summer(전 하기) 즉 여름을 모두 봉사하는 시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3. 전도대의 사명의식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대원으로서 사명

의식이 바로 서있지 않다면 마치 찍어버린 나무에 열매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 대원들은,

- 1)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사람
- 2)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마게도냐의 손짓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 3)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빛진 자로써의 사명이 철저한 사람
- 4)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명의식이 철저한 전도대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승리할 것이며 마귀는 물러가고 발걸음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전도대의 자세

사명의식이 철저한 대원들은 그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겸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대원들의 자세는,

- 1) 겸손과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
- 2)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해 힘쓰는 사람
- 3) 그러므로 얼굴은 항상 밝고 화사하며 마음에는 평강이 흘러 넘치며 옷맵시는 건전한 믿음의 사람
- 4)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동하며 협력 협조하여 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와같은 대원들로 구성될 때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확신합니다.

3. 전도대의 역할

이번 전도대는 다양하게 편성되어 수고할 것입니다. 그 예로 ① 부흥회 ② 전도집회 ③ 하기학교 등으로 지방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나아

가서 봉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 1) 부흥회 할 교역자만 파송합니다.
- 2) 전체 대원들이 함께 앞장서서 전도에 총력하는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 3) 주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하기학교와 저녁에는 어린이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 하기전도대는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6. 전도대의 목적

모든 일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도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리라는 표어를 걸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 1) 농어촌 교회의 영혼을 살리는 기회를 목적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 2) 농어촌 교회에 부흥의 기회가 되는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입니다.
- 3) 더욱 자신의 사명확인
- 4) 자신들의 영적 운동 확증하는 기회

5) 총현 교회가 살아있다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7. 전도의 결실

복음의 씨앗은 비지 땅으로 뿌리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돌립니다.(고전 3:6)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말씀과 같이 우리 전도대원들은 오직 땅과 눈물로 정성을 바치지만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하여 사명에 불타오르는 총현의 전도대원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고성 같은 마귀의 철벽은 심령심령마다, 마을 마을마다 무너질 것이요 죄악의 포로된 영혼들은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며 황무지 같은 심령 속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 부흥이 될 것이며,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신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 영혼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마게도냐성으로!

□ 특집① : 여름 행사를 말한다

크리스찬의 휴가선용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이 승 근 목사

(청년부지도 · 6지구심방)

여름 한철 학교에서는 방학, 직장에서는 휴가 등으로 인해 며칠 또는 몇달까지 여가를 보내야 할 일들이 생겨진다. 여가를 선용하면 영육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여가를 악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성도들로서 여름동안의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범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하였다. 성도는 언제나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죄악된

세계에서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영적인 힘이 쇠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짐으로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에 하루는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1년

에 한번 1주일 정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에는 유명한 산과 바다가 시원하고 좋으나 유혹객들로 인해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곳보다는 건전하고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기도생활에 힘을 쓰거나 혹은 산상 부흥회, 수련회 등 영적인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해 보거나 교회에서 가지는 여름 성경학교 등에서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족과의 친교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성도들이 교회봉사나 성도끼리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다보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가 쉽다.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거나 먼 곳까지

가서 가족끼리 교제나누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끼리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가족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인고로 무엇보다도 이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바르게 하다 보면 가족끼리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시골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성경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수련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가족단위로 바람직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계획을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세워도 좋다.

3. 성도끼리 교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일들이 있다. 성경에는 성도와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머리

로 하는 「지체」관계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불신자와 교제 나누는 것이 어색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성경에는 불신자에 대해서 교제의 대상 보다는 전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많은 불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여름동안에 산과 바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성도들도 그러한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다보면 범죄하는 일에 휩쓸리기 쉽고 여름기간이 영적성장은 커녕 신앙의 등불마저 꺼버리고, 가을이 되면 양심이 괴로워서 아예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가를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끼리 교제의 기회로 삼고 기도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여가선용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홍기원

□ 특집① : 여름행사를 말한다

하절기의 건강관리

— 신체 · 정신 · 사회적 안녕의 완전상태를 —



◎ 건강의 개념

성경에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 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신 34:7).

프랑스의 생물학자 「부론」은 “인간은 그 성장 기간이 완성되는 25세의 5배가 되는 125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한 연수를 살 수 밖에 없으나 세상에

서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보건현장에서 “건강이라 함은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완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즉 건강이란 것은 정신적 세 요인을 포함한 생명기능이 완전하게 운영되는 상태인 것이며, 질병이라 함은 이들

우 기 전 장로

(우기전환의원 원장 · 한의학박사)

의 불완전한 운영상태를 의미합니다.

● 여름철의 식생활

여름철은 생리적으로도 각 영양소의 소모량이 많습니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체내 수분과 염분이 줄어들게 되며 식욕도 떨어져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질이 적은 담백한 음식이 좋을 것이고, 오이 토마토 수박 등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으

로 부족한 수분과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 백미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족한 비타민B₁은 현미식 잡곡밥을 먹어 보충하고 파, 마늘, 부추 등을 먹어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비타민 B₁은 당질의 체내 연소에 필요하고 신경기능을 정상화하고, 효소의 작용을 도와서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장기간의 육식위주 식생활은 체액이 산성화 되므로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암, 신경통, 간장병 등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도 난폭하여지고 참을성이 없고 도전적으로 되어 갑니다.

그러나 채식(자연식) 위주의 식생활은 체액이 약 알칼리화 되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중요 식품을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성 식품 : 쌀, 보리, 옥수수, 파, 비스킷트, 아스파라카스, 완두, 밀가루, 배터, 치즈, 계란, 우유, 돈육, 양육, 계육, 어류 등.

알칼리성 식품 : 야채, 해조류, 감자, 고구마, 무, 토마토, 호박, 오이, 사과, 포도, 파인애플, 바나나, 인유, 우유, 산양유, 크림, 콩, 오렌지, 커피 등.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2:29)

여름철의 위생관리

●수인성 전염병

장티프스는 고열이 나며 심한 두통이 나고 팔 다리가 쭈시고 복통 및 설사를 하며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기는 증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환자의 대변으로 나온 균이 손에 묻어 전파되거나 파리 등 곤충에 의하여 오염된 음식을 먹어 전염되므로 음료수를 끓여서 마시며 주변을 청결히 하고 자주 소독하여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용변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콜레라는 설사가 주된 증세로서 처음에는 물같은 변이 나오고 심하면 쌀 드물 같은 설사가 나고 구토하고 열이 높고 탈수증 순환장애로 허탈상태가 되며 목이 쉽니다. 이런 경우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더운 유동식을 주며 보온에 치중하여야 하고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을 하고 환경위생상의 주의, 파리 등 해충구제, 더위, 심신과로, 폭식 등을 피해야 합니다.

●열사병, 일사병

열사병 환자는 힘이 없고 흥분하기 쉬우며 메스꺼워 합니다.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끈끈합니다. 체온이 40℃ 혹은 그 이상 오르고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안면조홍, 두통, 이명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속히 鬱熱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늘에 옮겨 누이고 옷을 벗기고 찬 물을 뿌려 줍니다. (몇 양동이 정도) 그렇지 않으면 젖은 타올 여러 장으로 머리를 싸고 차게 적신 셔츠로 몸을 덮습니다. 다리를 맞사지 하는데 “아래로부터 심장쪽을 향한 방향”으로 합니다. 찬 음료를 주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깁니다.

경미한 일사병인 경우에는 두통이 오고 극도의 피로감과 현기증이 나고 피부가 발진 동통하고 끈끈해지는 데 때로는 기절하기도 합니다. 중증일 때에는 땀이 안나고 피부 건조, 체온급상, 안색창백, 결막충혈, 현훈구토, 호흡촉박, 섬아경련증 등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는 나무 그늘이나 냉방장치가 된 방에서 옷을 벗기고, 물을 끼얹고 머리에 찬 타올을 올려 놓고 쉬게 합니다. 15분 간격으로 반샷술 정도의 소금물 탄 찬물을 서너잔씩 마시게 하며 맞사지를 하고 그래도 회복이 안되면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뇌 빈혈

장시간의 목욕이나 외상 등에 의한 심한 출혈 또는 심한 설사, 구

토, 과도한 운동 정신적인 충격 등에 의하여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뇌 빈혈에 의해서입니다.

이때에는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을 흘리며 맥박이 약해지며 숨이 가쁘고 가슴 언저리가 아프며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구급법으로는 먼저 머리를 수평으로 하고 무릎을 세워서 눕힙니다. 보온을 유지해 주며 옷은 늦추고 호흡을 편하게 하여 줍니다. 암모니아수를 코 밑에 대 냄새를 들이마시도록 해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목이 마르므로 뜨거운 물, 차 등을 마시게 합니다. 의식을 잃은지 2분이 지나도 회복하지 않으면 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유형성 결막염

일본 “아폴로” 눈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은 결막에 염증이 생기며 눈 주위가 붓고 눈 분비물을 내는 급성 전염병으로 어린이는 경도의 발열, 두통, 전신권태가 오고 귀밑이 아프고 시력장애를 가져오고 4~14일간 계속됩니다. 환자의 눈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가 쓰던 기물에서 전염되며 수영장, 해수욕장 등 환경이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감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타올이나 세면시설을 청결히 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전염된 후에는 세면 용구는 각자 써야하며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주의할 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 및 근육마비에 유의하여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다한 직사광선은 화상을 유발하므로, 지나친 노출, 장시간의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쥐가 났을 때

안정을 취하고 따뜻하게 하여 줍니다. 아픈 곳을 세게 주르르거나 두들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약류를 붙여서 환부를 차게 하지 말고 더운 찜질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교회 내외에서 성경공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자, 제자훈련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은 양적인 성장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신앙의 미신화와 교권, 배금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내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밝은 전망이라고 보겠다.

평신도들이 일주일에 한 두번의 메시지로써 날로 사악해지고 영적으로 혼미해진 현대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임을 자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직장, 친구, 부모모임 선교단체, 교회의 구역모임에서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성장하고 있는 교회마다 목회자의 목회 지도력과 특징이 있게 마련인데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소그룹으로 성경공부하는 것과 제자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다. 그런 교회의 평신도들을 만나보면 성경공부를 통한 개인의 성장과 감격에 찬 간증을 듣게 된다.

5~10명으로 모이는 그 성경공부 시간에는 말씀의 성찬이 있고, 삶을 나누는(sharing) 간증이 있고, 서로 사랑과 선정을 격려하는 교제가 있으며 회원들간의 뜨거운 영적인 기도의 교류가 있다는 것이다.

□ 편집실 칼럼

소그룹 성경공부



김 종 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한 사람이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요 10:10)을 맛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공부는 몇 그룹을 제외하고는 지도자들이 일방적인 가르침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부서의 모임(철야기도, 교사모임, 임원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와 풍성한 삶(요 10:10)을 영위하므로 제자로서의 사명 즉: 재생산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비교해

도 손색이 없는 구역조직과 열심있는 구역요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최소한 구역예배의 모임만이라도 서로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 성경공부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여름철마다 햇볕보다 더 뜨거운 열기속에서 여름성경학교와 각 부 수양회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동원되어 개최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삶과 연결되는 교육과 훈련으로 계속 개혁하여야 될 것 같다.

우리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고 분석해서 좋은 것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때인것 같다.

그것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필연성 앞에서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몸의 말단에서 심장부를 향하여 아픈 부분에 가벼운 마사지를 하여줍니다. 발이나 손가락에 쥐가 났을 때에도 더운 찜질을 하고 쥐가 난 부분을 잡아 당기면 됩니다.

●피부 관리

여름철의 강한 햇볕은 피부를 자극하여 기미와 주근깨, 여드름이 생기게 하며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 몸 전체를 검게하고, 바닷가에서 특히 한낮에 오래 그늘리면 물집이 생기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기미와 주근깨는 자외선을 오래 쬘수록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잘 생깁니다. 일단 생긴 기미나 주근깨는 치유가 어려운 편이므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고, 오이 당근 등으로 파크를 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가 별장게 났지만 물집이 찢히지는 않았다면 폴드크림이나 올리브유를 바릅니다. 버터나 마가린 같은 기름을 아무렇게나 바르면 파갑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물집이 생기거나 넓게 났다면 찬물에 적신 거즈로 덮습니다.

다 나은 때까지 피부를 다시 태우면 안됩니다. 화상이 심하거나 부위가 넓으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맥산(生脈散)

무더운 여름철에 청량음료로도 쓸

수 있는 한방처방(漢方處方)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더위에 지쳐서 피곤하고, 땀이 많이 나고, 목이 마르고, 숨이 차고, 맥이 약하고, 원기 부족하고, 식욕이 떨어질 때에 생맥산을 상복하면 청서익기(淸暑益氣)의 효과가 있습니다.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을 2:1:1의 비율로 다려서(煎湯) 냉장과 같은 시원한 곳에 두고 수시로 (하루 2~3차) 한 컵씩 마십니다. 여기에는 땀이 심한 경우에는 황기(黃芪)와 감초(甘草)를 인삼의 비율로 더해서 쓰면 좋습니다.

구속사적 역사의식

(갈4:4-5, 계1:8)



김명혁 목사

(강변교회 시무)

서론 : 역사와 역사의식

기독교 역사관을 말하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두마디 언급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두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란 자연계와 인간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의 과업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19세기의 독일 역사가 란케(Ranke)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역사란 과거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 역사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역사가의 과업은 그의 마음 속에 과거의 역사를 재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딜타이, 크로체,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국 역사가 E.H. 카르가 지적한대로 양극단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자연계와 인간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을 정확히 기술함과 아울러 그것을 오늘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건과 해석을 포함하며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붙잡는 것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되풀이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부활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현대적 의미」만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E.H. 카르가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말은 역사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사람은 비교적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도들도 비교적 역사의식이 부족한 신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그것을 오늘의 삶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의욕도 부족합니다. 역사의식을 결하게 될 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물안 개구리의 머리식음이나 독불장군의 횡포를 범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감과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현실도피주의나 개인적 안일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본론 :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이란 인간역사의 발전과정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시간과 영원과의 관계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역사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므로 발생한 일들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역사관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독교 역사관이 무의미하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1. 기독교의 역사관은 기독교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인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역사적 신인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나 회람의 세계관이 시간과 영원을 분리하며 현상계와 예지계를 분리하는 데 비해 기독교 역사관은 시간과 영원이 역사선상에서 만나는 것으로 보며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만났던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실 때 인간 역사 밖의 영역에서 이루시지 않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역사 안에서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성취하실 때 천사들과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정한 때에 유대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이시며 사람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빌라도의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을 말합니다. 왜 본디오·빌라도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티베리우스 황제 때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

읍니다.

초대교회의 노스틱주의자들은 이와같은 하나님의 역사성을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원론을 가르치며 육체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천상의 것만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만남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성을 최초로 강조했던 초대교회의 교부 이레니우스는 노스틱주의를 반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찾아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며 기독교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땅위에서 이루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어거스틴 역시 노스틱주의자들이 형이상학적 구원관 내지 역사관에 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초역사적인 신비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선상에서, 현재 속에서 실현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서의 유명한 신약신학자요, 역사신학자인 오스카·쿨만 역시 기독교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트와 볼트만 같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했고, 시간 속에서의 발전과정은 하나의 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읍니다.

볼트만에게 있어 시간이나 역사적 사건들은 별가치가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초역사적인 하나

님과 내가 지금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실존적인 관계입니다. 이와같은 볼트만의 비역사적 실존주의 역사관을 신랄히 비판하며 쿨만은 “구속을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계속적 시간과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각광을 받고있는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그도 최근에 기독교의 역사성을 다시금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미신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하며 발트와 볼트만의 변증법적 실존주의 신학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신학적 질문들과 해답들은 역사의 틀 안에서 이해할 때 의미를 갖는다. 세상에게는 아직 숨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드러난 미래를 향해 발전해가고 있는 역사만이 신학에 의미를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신학의 전제는 오늘날 두 측면에서 변형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역사를 존재의 역사성으로 해석해 버리는 볼트만과 고가르텐의 실존주의 신학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참된 내용은 초역사적이라는 말틴·켈러나 성육의 사건을 원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발트의 변증법적 신학에서...”

2. 기독교 역사관은 성육(Incarnation)의 사건을 역사의 중점에서 보며 모든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열쇠로 봅니다.

성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역사 속에 들어오신 가장 큰 사건이며 인간 구원과 변혁의 일을 시작하신 획기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기독교 역사관의 중심이요 기초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역사를 “타락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로 구분했는데 나무와 관련하여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나무 위에서의 순종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성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므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에로 회복하시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의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이루어지는데”(신국론).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역사를 소급하여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며, 교회시대에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한다(신국론)고 하므로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관을 내세웠읍니다.

오스카·쿨만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기를 계시하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 곧 로고스의 형태로 아우구스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역사 속에 오신 일이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모든 역사는 이 중심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되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사건 전후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최종적 의미를 부여하며 판단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관을 피력했습니다. 쿨만은 계속해서 기독교적 연대 계산법은 로마나 유대의 연대 계산법과 같이 시발점에서 시작하여 계속 앞으로 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점으로 부터 시작하여 앞뒤로 세어 나가는 계산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1과 2의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땅위에서 인간의 역사의 발전과정 안에서 실현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사건이 세계역사에 끼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의 역사적 처지를 하나님의 인간회복의 계획이 실현되어가는 마당과 무대로 봅니다. 창세 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인류구속의 계획이 바로 이 땅위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으로 봅니다. 쿨만은 그리스도 사건이 세계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패하여 그 이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또한 일반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 이방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나라의 성쇠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준비 또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잇수르 나라를 방망이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루터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왼손으로는 세상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와 아울러 세속사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역사 안에서 이중적인 의미(특별은총적 의미와 일반은총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세번째 특징이 역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비관론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역사적 현세에 대해 비관론적 자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 깊이 자리잡은 죄악의 세력과 세속질서 가운데 깊이 스며든 죄악의 세력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 죄악의 세력이 점점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악의 세력이 점점 성해져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세대를 판단함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비관론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하나님의 도성과 마귀의 도성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의 구속사관의 관점에서 현세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현세의 역사 자체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목적 자체라기 보다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에게 불만을 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견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적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까지도 지상에서는 평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 죄와 싸우고 왔으며 육체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다".

어거스틴은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의 실현을 기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현세의 생활을 가련하고 비참한 생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할 때 나는 비참한 것을 보는구나! 아이들 태어날 때 근심거리가 늘어가는 것 뿐이구나!" "애기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고 울면서 태어나는 사실은 그가 당면할 재난들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예시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불교적인 허무주의와 부정주의는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깊이 스며든 죄악의 무서운 세력을 절실히 느끼는 자의 한탄이요, 천국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현세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는 종말론적 입장에 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입장을 우울한 실재론적 입장이라고 묘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렇게 비관론자 밖에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궁극적으로 낙관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 현세의 역사가 잠정적이지요, 수단이지요 목적 자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잠정적인 역사발전이 되는데로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낙관론자가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같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서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바울도 낙관론자가 되었고 어거스틴도 비관론적 낙관론자가 되었고 칼빈도 낙관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사건이 바로 이 역사 발전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종말론적 완성의 점을 바라보게 될 때 용기와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과 어거스틴은 이 종말론적 구속사를 한 손에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물론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현세의 정치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순과 불의의 구조, 그 구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나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비관론자가 낙관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역사 신학자 펠리칸 교수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현세에 대한 비관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이심을 알 때 낙관론자가 됩니다. 밋모섬에 갇혀 있는 죄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도미시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파노라마와 역사 발전의 청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의 손을 보는 사람은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소유하게 되며, 비판적 괴로움 속에서도 낙관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역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비판적인 동시에 낙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궁극적 판단을 보류하는 역사에 대한 중립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로 판단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반 역사적 사건들의 종말론적 의미가 지금 가리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재난의 사건을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로, 부의 축적과 성공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지지하는 정부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일치시키는 성급한 판단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의미의 모호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기 보다는 무당종교의 역사관이라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의미가 알려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4. 기독교 역사관은 개인의 창조적 역할을 중요시 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비인격적 기계나 도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국가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봅니다. 인간은 역사창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의 계획을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하는 것같이 정열을 쏟아 부으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줄 알고

내버려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하루라도 쉬면 하나님의 일이 안될 것처럼 쉬지않고 달려가는 창조적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 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요. 그 고백이 있긴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개인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 창조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두가지 역할이 주어 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고 하나는 세속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둘은 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루터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왼손으로는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듯이 크리스찬은 한편으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의나 사회적인 부정과 타락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말을 안하는 것은 루터의 말을 빌리면 병어리 개와 같습니다. 물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해야 하겠지만 크리스찬은 불신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결론 : 종말론적 구속사관

끝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관은 구속사관입니다. 구속

의 사역이 초역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역사관, 그리고 종말론적 완성점을 향해 발전해 가고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크리스찬 개인 개인이 어떻게 역사 창조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의 위치를 바로 발견하는데 있습니다. 내가 구속사의 한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구속사적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삶의 보람과 기쁨과 용기가 생깁니다. 나같은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모습을 나 밖에서, 종말론적 완성의 점에 서서 내려다 보는 종말론적 초연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같은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나에게 가해지는 오해와 멸시와 박해도 나를 도무지 불쾌하게 만들지 못하고 낙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람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역사 창조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아갑니다. 이와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라고 했습니다(히11:37).

<김변교회신앙강좌전문>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아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819



김 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①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며

오늘은 주기도문 7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둘째번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하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인생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주소서”하는 말로 해석해도 틀리지 아니한 해석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실력을 키운 다음에는 앞길을 열어 취직을 잘하게 하려고 시험을 치룹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실력, 신앙생활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루는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납니다. 경제면에서 사업에 실패가 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너 시험을 당해 겁내지 말고”

세상 학교에서도 국민학교 1학년 학생에게 대학교 수준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범위내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치르시는 억지쟁이 하나님께서 꿈에도 아니십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특별한 실력으로 감당할 실력을 대신 주시면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꾼을 만드실 때에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일꾼을 들어 쓰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험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에, 경제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이 왜 왔나,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 실력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은 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 시험은 지식이 있어야 치룰 수 있고, 영적 시험은 영적 지혜 없으면 낙제생이 됩니다.

둘째로 악마가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치룹니다. 이 시험에 걸리면 큰 일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시험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어부의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을 쳐놔는데 물고기들이 마음놓고 다니다가 여기에 걸려들면 죽을 수 밖에 없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악마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할 때 제일 첫째 방법이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유혹이라는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 함정은 욕심을 1등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남남관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욕심을 미끼로 그물을 놓습니다.

삼손이는 음란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신분도, 백성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먹고 마침내는 원수의 포로가 되니 영육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또 마귀의 유혹은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사울은 시기하

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적군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마귀의 울무, 그물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 낙제생입니다. 인생에 낙제생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땅을 팔아서 얼마는 숨겨두고 얼마를 가지고 가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종앞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절반을 떼어먹었습니다.

현금을 바친 것은 잘했는데 절반 바치고 다 바쳤다는 말을 한 것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명예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드릴 때 언제나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야지 교만과 명예를 탐하는 욕심으로 바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로 쓰는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명예와 권세 그리고 남남관계에 대한 욕심 또 그외 여러가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욕심으로 유혹해서 시험에 낙제생이 되지않으면 그다음에는 뽀박을 합니다. “너 정말 이럴 수 있겠니?” “정말 그럴테야?” 필요없는 억울한 뽀박을 가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마의 뽀박을 받으면 재산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의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뽀박, 여러가지 뽀박을 합니다.

이 뽀박도 잘 이기면 세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급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아무개는 이단이야,

시험이 어려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특별한 십리로 감당할 실력을 대신 주시면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꾼을 만드실 때에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일꾼을 들어 쓰십니다

신정통이야, 신신학이야!” 그제 얼토당토 않은 것을 가져다 뒤집어 끼워서 “아무개가 아무때 약시약시 했다구!” 없는 말을 가지고 자꾸 뒤집어 끼웁니다. 이것이 악마의 세례 계단입니다. 유혹하다 안되면 꺾박하고 꺾박하다 안되면 누명을 끼워서 모략중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험에 안넘어가야 하는데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어떠한지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낙제 안되려면 세상 시험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영적 시험에 합격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낙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뭔지, 악마가 어떤 놀인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부터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돈보다 하나님을, 내 몸뚱어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하고 마음에 결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생깁니다.

모든 유혹을 왜 못이기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명예 등을 더 사랑해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여야 시험에 이기느냐? 시험에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교만하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지 내가 뭘 한 것으

로 알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시면 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을 마음 가지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못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째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 앓은뱅이, 문둥이를 깨끗이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 밥 먹이시고 했는데 뭐 잘못했다고 매맞고 첩배음을 당했다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 받으신 억울한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섯째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뿌리와 가지에서 진액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고로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 품안에 주소를 정하고 절대로 다시는 다른데로 가지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품안에 안기워 있으면 어떤 시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시험을 이기면 자격이 생기고, 자격이 생기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낙제하면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써주지 않

으십니다. 그런 일생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장로 투표를 받은 집사님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고 묻는 말에 세가지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숨 끊어질 때까지 감사하다가 죽으라”. 둘째로는 “교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잘받는 사람이 되라”. 세째로 “봉사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봉사자가 되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만 사람에게 존경받는 날이 옵니다.

“시험을 이기면 실력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써 주시고, 하나님이 써 주시면 마음에 천국, 성화에 성공이 옵니다”.

몸에 병이 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 보란 말이요, 시험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급제하느냐, 낙제하느냐가 문제이니 하나님 부터 사랑합시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시워시 조심하며 충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품안에서 살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되고 날마다 실력이 자라고 실력이 큰 다음에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일꾼이 되어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



칼빈주의 정치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인간은 항상 정치권력의 한 분자로서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이에 대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 칼빈주의 입장에서 본 정치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1. 정치적 원리

성경은 국가의 정치적 발전의 근본원리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한 믿음은 “주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시 103:19)는 시편 기자와 고백에서 표현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영역 모든 국민의 주권자로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의 신령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또한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켰으며 정부의 설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인간 정부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으며 따라서 정부는 행악자들을 처벌하고 선행자들을 장려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복종은 권리를 부여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칼빈은 그의 사무엘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일할 위정자들을 선택

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직책에 악인이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세움으로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든 정치적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백성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 이와같이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진리의 본질과 정치적 영역에서 인간에게 위임된 권한의 한계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정치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정치적 권위

성경은 주권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세한된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즉 바울사도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고 했다.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는 그의 소유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의 것이로다”(시 24:1)고 시편기자는 말했다. 이와같은 소유권은 주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세계 내에 있는 그 어떤 존재나 사물에도 예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절대권이 있다.

국가와 관련하여 주권(Sovereignty)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것은

정부에 속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으나 동시에 그 권한을 제한하셨으므로 그것이 적절한 선에서 사용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정부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권위는 생의 여러 영역내에 존재하는 주권들 중의 하나이다. 만약 정부 당국자들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고 간섭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 행위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주권이다. 둘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주권으로서 가족, 사업, 과학, 예술 등을 들 수 있다. 이 권위는 국가의 주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지배하는 권위이다. 세째, 국가에 있어서의 교회의 주권이다. 교회의 위치도 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리(jure divino)에 의한 것이다. 교회는 독자적인 조직과 역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교회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독자적인 은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고백으로서의 자기의 신앙고백을 선언하는 것은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교회의 특권인 것이다. 만약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영역침해이다. 그러나 그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권적 권위는 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위임하였다. ② 정치적 영역에서의 주권적 권위는 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존재하는 권위들 중의 하나이다. ③ 정치적 영역은 물론 모든 다른 영역들도 그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

3. 정부와 교회의 의무

1) 정부의 의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부는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의와 공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하기를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고 하였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속적인 권위와 자유가 공존하는 것처럼 정부는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회가 해방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종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하여 동등한 예우(禮遇)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

부는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해서는 안된다.

2) 교회의 의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간섭을 삼가해야 한다. 국가는 교회에 대하여 예배와 말씀선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법률제정의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무엇인가? 교회는 교인들에게 말씀증거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앉은 자들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당국자들에게 승복하도록 하고 언제나 정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딤후 2:2 참조)

교회는 말씀증거를 통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성경에 계시된 원리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교회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정의와 자유, 평등의 원리가 모든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정부와 백성

정부에 관한 성경적 견해는 정부가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정부는 백성에게 예속되는 기관도 아니다. 언제나 정부와 백성은 국가생활을 발전시켜야 할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이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시말해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국가의 일부이며 그러한 위치에서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오직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국민들의 특권이 허용된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소리가 무시되거나 꼭해되고 또는 침묵된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민의 정부임을 가르친다. 시민들은 공세를바쳐야 하고(롬 13:6),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딤후 2:1-2), 왕을 공경해야 한다(벧전 2:17).

이와같이 정부와 백성은 서로 협력하며 나라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04

이 책은 책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인생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성공비결 책이다. 살아가는 삶에서 갖가지로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성취하는 비결을 보여주고있다. 저자 조지 윈은 어렸을 때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였으나 그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하여 미국 굴지의 재벌 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나이 34살에 무려 30개의 기업을 거느리는 대 재벌의 총수가 되어 미국에 억만

□ 신간안내

조지 윈 지음 · 조원길 옮김

성공비결 : 동기의 기적

보이스사 · 392페이지 · 3,000원

장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조지 윈의 자기 체험에 비추어 집필한 이 책은 틀림없이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며 성공비결을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오늘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하는 일에 동기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수없이 다가오는 기회들 중에 당신이 하나를 잡지만 하면 위대한 성공인이 될 것이다.



복음과 선교

= 성경적 전도론 =

조영길 목사

(제4지구심방)

5. 복음과 인류의 관계성이 무엇인가?

① 믿어야 할 복음이다(막1:15)

왜 우리 인간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 영생이요(요 3:16, 롬 1:16, 고전 15:1-2) 믿지 아니하면 영원 멸망이기 때문이다(요 3:18, 계 21:8).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는 구조자의 손을 붙잡지 않고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궁극적 위치(ultimate position)이다.

② 그대로 살아야 할 복음이다(갈 2:14)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빌 1:27) 복음에 순종하며 살고(벧전 4:17, 고후 9:13) 복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빌 1:5)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바탕이요 영역이다.

③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야 할 복음이다(막 16:15)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것으로 알아야만 한다. (고전 9:16) 또한 우리는 복음에 빛진자들인 것을 알고(롬 1:14-15)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행 20:2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야 한다(딤후 4:2) 말씀(복음)은 살았고(히 4:12) 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딤후 2:9) 진정 복되고 기쁨소식은 나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야만 한다.

본론:

II. 전도(선교): 신자들의 관계성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일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전도는,

1.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취하시기 위하여(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8-22)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눅 5:10)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막 3:14)

2.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2:3)

3. 전도는 하나님이 인류구원을 위하여 기뻐쓰시는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하셨도다’(고전 1:21) ‘아름답다 좋은소식(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 사 52:7)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딤후 1:3)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도”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부르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롬 10:15상)하면서 택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보내심을 말하고 있다.

4.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하)

- ① ‘너희는 가서’ - 전도의 명령
 - ② ‘모든 족속으로’ - 전도의 대상
 - ③ ‘제자를 삼아’ - 전도의 목적
 - ④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 전도의 방법
 - ⑤ ‘지키게 하라’ - 전도의 결과
 - ⑥ ‘불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전도자들에게 대한 약속이다. (마 28:19-20)
- 이상과 같이 분석하여 볼수가 있겠다.
- ① ‘너희는’ - 전도자들(모든 그리스도인)
 - ② ‘온 천하에 다니며’ - 전도의 영역
 - ③ ‘만민에게’ - 전도의 대상
 - ④ ‘복음을’ - 전도의 내용(오직 예수만을)

⑤ '전파하라' - 전도의 명령이다 (막 16: 15)

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 전도자들과 전도의 실제적인 스타팅

② '너희가 권능을 받고' - 전도자의 자격

③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 전도의 영역

전도의 점차적인 영역 점거 곧 복음의 세계화이다.

④ '내 증인이 되리라' - 전도의 명령이다 (행 1: 18).

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 예수님이 오신 목적(전도와 구원)

②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전도)

③ '성령을 받으라' - 전도자의 자격(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요 20: 21-22)

5.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또한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 1: 38)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눅 4: 43)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요 8: 18상)

6.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 15: 26, 요일 5: 7)

7.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요 8: 18하)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요 5: 37)

8. 성찬예식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 26)

성찬의 참 뜻은 만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

를 기념하고 (눅 22: 19) 믿고 은혜를 받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데 있는 것이다.

9. 성경도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 39)

'모세의 율법과(모세 5경) 선지자의 글과(선지서와 역사서) 시편에(시가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눅 24: 44)

10. 예수님이 실시하신 제자들의 전도훈련과 파송

12제자들의 전도훈련과 파송 (마 10: 1-23) 70인의 전도대 훈련과 파송 (눅 10: 1-16)과 전도훈련 실시에 대한 그 결과 보고도 하였다 (눅 10: 17-20).

이상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전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도의 생활 안에 전도가 있고 전도 안에 성도의 생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성도들의 삶은 불가분리에 있음을 명심하고 전도에 항상 힘써야겠다. 종리

1982년 주교각부 계절학교(여름) 실시계획(개요)

총현교회 교육위원회

구분	무명	어새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산교부	산교부	계
회수	15	15	29	29	29	20	20	13	12	5	7	1	1		
주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람은 부기되지 않고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예수님	고마우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은혜의 길은 바로 가자	기본신앙 생활훈련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생활화 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성경화하는 생활을 하자	민족복음화와 새 계성교에 앞장서자		
주제성구	딤후 3:14-15	고전 13:4	시 107:1	요 11:25-26	엡 15:18	행 1:8	눅 5:4	딤후 4:7	요일 4:11	시 119:105	사 40:31	엡 4:13	행 1:8		
주제찬송	222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 고마워요	110	201	543	430	299	634	628	324	517	558		
기간	1982 7.26-29	1982 8.17-18	1982 8.9-12	1982 7.26-29	1982 7.26-29	1982 7.26-29	1982 8.2-5	1982 7.21-24	1982 7.14-17	1982 8.12-13	1982 8.23-24	1982 7.29-31	1982 8.2-5		
장소	어새부실 청년부실	영아부실 유년부실	유치, 영아, 유년부실	유년부실	문당	중현 기도원	중현 기도원	중현 기도원	중현 기도원	중현 기도원	중현 기도원	유년부실	중현 기도원		

※ 주교각부 계절학교행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8 회

농어촌 교역자 수련회

— 그리스도를 본받자 —

◇... 작렬하는 태양 밑도 식히듯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165명(목사 90명, 전도사 47명, ...◇
 ◇... 강도사 17명, 장로 1명)의 교역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였습니다. ...◇
 ◇... 개회 예배로 전도위원장 장정일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
 ◇...로 산업 전도부에서 내과, 치과, 한방과, 약제과, 피부과 등등 다양하게 진료에 들어서...◇
 ◇...자 담당하신 여러분들께서 교역자들의 몸을 씻듯이 진찰하여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
 ◇...진료가 끝나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을 등지고 복음의 동산(충천기도원)으로 달...◇
 ◇...려갔습니다. ...◇
 ◇...드디어 첫날 부흥성회가 시작되자 정문호 목사님의 홀려 넘치는 성수에 모든 교역자님...◇
 ◇...들은 자속 하면서 아-멘이 연발치듯 솟아 나왔습니다. ...◇
 ◇... 29일(둘째날) 동녁에 해가 뜨기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주의...◇
 ◇...중들의 발걸음은 소망이 넘쳤습니다. 아침강의로 시작하여 솟아나는 생명수는 전국교회...◇
 ◇...를 향한 외침과 같았습니다. ...◇
 ◇...주 감사로 오신 정문호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한 사명감으로 강의를 열강하셔서 모...◇
 ◇...든 교역자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
 ◇...더욱이 장시준 목사님의 성경강해, 민정웅 목사님의 "농어촌 교회의 발전책"이란 열...◇
 ◇...강과, 구명신 전도사님의 「심방과 실제」는 전 교역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습니다. ...◇
 ◇...마지막 특강으로 장정일 목사님의 "전도법" 강의 후 전도위원회의 각본과 소개는 저희...◇
 ◇...교회가 현재와 미래에 뻗어나갈 충현의 소망이요 한국교회의 미래상을 소개함으로써 특강...◇
 ◇...을 끝냈습니다. ...◇
 ◇...절기 마지막 날 부흥의 열기는 더욱더 세차게 올라 모든 교역자들이 절이기도 밤을...◇
 ◇...지새면서 강의와 간증으로 모든 수련회가 마무리 지을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수련회...◇
 ◇...가 끝났습니다. (전도위원회註) ...◇

한국 농촌교회

자립과 성장의 길



민 정 웅 목사

(독바위교회 시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막16:15)을 성취해 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농촌복음화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2만이 넘는 한국교회 중에 일만오천이 농촌교회이며 그중 미자립농촌교회가 일만이 넘는다고 하니, 한국농촌복음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이라고 합니다. 10억이 넘는 중국의 인구중 80%가 농민이며, 6억이 넘는 인도인구의 80%가 농민이며, 방글라데쉬, 파키스탄, 필리핀 등등이 그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입니다.

복음화된 한국 농촌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농촌과 어촌에서 그 일생을 사셨던 것처럼 한국 농촌교회 목회는

곧 이 민족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저는 독바위교회를 개척으로 부터 지금까지 담임하고 있습니다. 어언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독바위교회는 자립의 단계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농촌교회를 자립시키고 계속 성장시켜 갈 수가 있을까? 저는 10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의 삶이란 곧 "Christian life"입니다. "Christian life"란 자연인의 삶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자연인의 삶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Christian life"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죽는 밑알이 되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농업을 천직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농민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였습니까? 소명의 삶은 농업을 비중있게 만든 것이고, 자부심을 갖는 농민을 만들 것입니다. 소명의 삶은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쓸쓸하게 만드는 의식을 개혁시켜 줄 것입니다. 한국 농촌복음화는 소명의 삶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명의 삶" 이것은 농촌교회 자립과 성장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농촌교회 성장론도 그 실 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28세 신학교 졸업반 때 농촌선교에 뛰어들어서 독바위교회를 개척한 이래 오늘에 이른 저의 삶은 소명의 삶으로서 만이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29:18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비전이란 당신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는 목회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마15:14)입니다. 비전없는 목회자는 눈없는 목회자라는 말씀입니다. 독바위교회의 비전은 "민족복음화, 기독교한국"입니다. 기독교한국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이사야11장6절—10절에 예수님의 왕국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며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노사의 분리가 없습니다. 신뢰의 사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지향하는 것이 저의 삶이며 저의 목회입니다. 이 비전성취를 위해서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독교 한국건설의 모판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독교한국건설의 모판이란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심는 모처럼 본교회 교구 안에 있는 완전 복음화된 마을 하나를 전국59,526개의 자연부락에 옮겨심어 한국농촌을 복음화하고 기독교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독바위교회는 이 비전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방성서학교 운동으로 이 비전을 키우고 있습니다.

3.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독바위교회가 자립할 것과 모든 한국 농촌교

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범 농촌교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관해서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대로 되었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이기 때문입니다.

4.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아이의 자기 희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읍니다. 오늘날 독바위교회가 있기 위해서 저의 희생이 있었읍니다. 희생없는 비전, 희생없는 믿음은 공허할 뿐이며 뿌리없는 나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5.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10:36) 인내는 신앙생활의 결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약1:12).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자 13명 중 11명이 기독교 신자, 1명이 천주교 신자, 1명은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어린 시절에 유년주일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공하게 된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격려를 받고 나가는 길에 빛을 얻었습니다.

6.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설교해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하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축복받고 계속 부흥하고있는 교회가 있는데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설교하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있는 교

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갈보리”교회가 그 예입니다.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이유가 김창인 목사님이 훌륭하시든지 참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든지 교인들이 훌륭하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충현교회가 약속의 말씀에 서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제가 80년도에 일본에 유학갔을 때 일본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교역자들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의 경향을 띄고 있다는 점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촌교회보다 교세가 더 약한 것이 일본의 도시교회입니다. 그러니 일본의 농촌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학, 그들의 설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7.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성령에 눈뜨게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눅11:9—13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구할 것은 성령”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자립의 길이 열리고 성장하여 갈 것입니다.

8. 자립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립계획 없는 교회는 자립하지 못합니다. 자립계획은 곧 자립의지 입니다. 저는 독바위교회에 자립금 일백만원이 채워지던 주일(1975. 3. 30) 정말

자립을 선언하고 자립하였읍니다. 개척으로 부터 이때까지 돕던 서울 한양교회는 자립이 너무 이르다고 더 돕겠다고 하셨으나 그대로 믿음으로 자립의 길을 걸어 나갔읍니다.

개척 첫해인 1969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362,054원이었고 75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1,585,619원이며, 81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12,934,659원이었습니다. 82년도 예산은 16,500,000원을 세웠읍니다.

9.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농촌선교는 특수한 정황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접촉점이란 이러한 특수한 정황 가운데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선교를 하기위한 어떠한 거점확보라 할까, 혹은 발판을 놓는 것이라 할까 그런 것입니다. 예를들면 지나간 동안 독바위교회가 만든 ① 아브라함농장 ② 독바위야전전료소 ③ 독바위양계조합 ④ 독바위신용협동조합 ⑤ 독바위결혼상담소 ⑥ 신농회 ⑦ 독바위어린이집 등입니다.

10.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농촌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평신도 지도자 육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본교회에는 육성된 평신도 지도자가 현재 12명이나 됩니다. 이 열두분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여 일생을 살며 기독교 한국건설의 모판을 만드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농촌의 희망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마다 이런 분들 열분 이상이 섬길 때 그 교회는 자립되고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한국농촌은 복음화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세계선교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

복 음 전 도 전 략

＝ 태신자 전도를 중심으로 ＝



장 정 일 목사
(전도위원장 · 지구심방)

우리는 모두 인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킴으로 국민의 자유를 누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온 천하에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생명구원의 일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다.

1.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그들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갖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는 악마와 싸우는 전쟁이다. 이것은 우리의 재산

과 재능과 생명을 총동원하여 싸워야만 하는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전쟁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 전쟁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는 선포(복음전도)만 하면 된다. 악마에 포로된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의 검으로 구출하자.

2.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시어 구원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 큰 역사 대열에서 이탈하겠는가? 오직 복종이 있을 따름이다(요6:29).

2) 예수님의 부탁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부탁하신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자(마26:39).

3) 성령님이 파송하시기 때문이다. 완악한 죄수, 무지한 죄인인 나를 감화시키시고 예수님을 영접케하신 성령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파송하신 성령님(행13:2-4),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앞드려서 간구할 때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행1:8) 그분께서 가라 하시니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하며 나가자.

4)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알지 못하고 죄 중에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인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지옥에 가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는가(눅16:27-28).

5)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 사명에 등한한다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선전들이 이 사명을 무시했다면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악마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 교회가 이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므로 오고오는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마16:18).

3. 태신자 전도전략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4:15)

1) 태신자란?

첫째, 기도중에 구원 받아야 할 불신자의 얼굴을 마음 속에 새기고 둘째, 그분의 이름을 카드에 기록한 후 셋째, 모성애를 갖고 늘 관심을 기울여 교제

하면서 네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분으로 꼭 믿고 인도하기로 결심한 전도 대상자들을 말한다.

2) 태신자 카드 작성 요령

① 대상을 정한다. 먼저, 기도중에 백지를 놓고 나의 가족, 친척, 직장동료, 학교 급우, 이웃에 아는 분 중에 불신자의 이름을 다 적어본다. 다음엔, 교회와 관계있던 분들 중에 구역카드, 각반 학생카드의 가족중 불신자 또는 전에 신앙생활하다 쉬는 사람, 혹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어떤 관계로 교회에 나와 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방전도나 집집마다 전도하는 축호전도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관심을 보인 사람이나, 더 접근해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

② 대상이 정해지면,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만든다.

3) 태신자 개인접촉 전도 요령

① 잉태단계, 첫째,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



랑하는 모성애를 가지라. 둘째,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생활을 늘 관찰하고 돌볼 기회를 포착하라.

② 접촉단계, 첫째, 인격적 교류를 가지라. 그분의 입장에 까지 낮아지라. 모든 겉손과 눈물과 인내로 유익한 말은 꺼리지 않고, 회개와 믿음에 대한 복음제시의 기회를 만들라. 둘째, 선행에 힘쓰라.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즉 전화, 편지, 자가용 등 그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네째 축복편을 사용하라.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다섯째, 교회의 지원을 요청하라. 구역이나 반에서 협력자를 구하고 교역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라.

③ 인도단계, 첫째, 약속하라.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신약과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이다. 둘째, 모셔오라. 육신의 성인이 영적인 성인 만은 아니다. 셋째, 인도 후 학습, 세례 교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본다.

4) 전도대원 심방전도 요령

① 준비, 첫째 구역을 구역전도대로 조직, 주교의 각반을 전도대로 조직한 후 둘째, 태신자 카드를 정리한다. 구역엔 구역원 카드가 있고 각 반엔 학생카드가 있듯이 구역이나 각 반에 태신자 카드가 얼마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전도대상자 몇 명을 선정코 함께 전도대원이 기도회를 가진 후 셋째, 연결심방전도를 실시한다. 연결심방전도란 태신자를 영태한 전도자와 구역(반)의 전도대원이 함께 연결되어 심방전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음제시

가. 서론

ㄱ. 세속적생활, 인사, 주인의 안내를 받아들이가면서 자연스런 대화로 시작.

ㄴ. 그들의 교회, “전에 교회에 나가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가까운 친척중에 예수님 믿는 분이 계십니까?”

ㄷ. 우리교회, “저희○○교회를 아십니까?” “보신적이 있습니까?” 등.

ㄹ. 간증, 교회적인 간증이나 개인적인 간증을 하되 영생 받기전, 예수님을 믿게된 상황,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의 변화된 생활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ㅁ. 두가지 질문,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 복음의 내용

ㄱ. 은혜, “천국은 돈이나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ㄴ. 인간, “그러나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해결하고 천국을 값주고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롬3:23).

ㄷ.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와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ㄹ. 예수님, “여기에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랑이십니다. 죄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4:12)

ㅁ. 믿음, “그러면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요3:16).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현세적 신앙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오

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결신

ㄱ. 확실하는 질문, “이해가 되시죠?”

ㄴ. 결신을 위한 질문, “이 좋은 영생의 복,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ㄷ. 결신의 명백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행으로 좋은 곳에 가려던 일을 버리고 이제 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요1:12).

ㄹ. 결신의 기도, 간단하게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을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된 기도를 드린다.

ㅁ. 구원의 확신, 요6:47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축복하며 환영한다.

4) 총동원 전도전략

① 목표, 표어, 주제성구, 주제찬송「결정의 날」을 정한다.

② 준비, 교회 앞에 공포하고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설교를 통하여 온 교인을 총동원 전도운동으로 매진케 한다.

③ 조직, 적어도 30~40일전에 전도대를 교회 형편에 따라, 조직하고 추진 전달기구를 설치한다.

④ 태신자카드 배부및 작성제출, 한달 전에 배부한 후 몇주 지나서 작성케하든지 한달전에 광고하고 기도로 준비케한 후 바로 전 주일 낮 예배시에 작성케 하거나 저녁 전도헌신예배때 작성하여 제출케 한다.

⑤ 전도훈련 및 헌신예배, 정기 집회시(주일저녁, 수요, 금요일)또는 한주간 중 몇일을 훈련케한다. 그리고 ‘결정의 날’ 전주일 저녁은 전도헌신예배를 드린다.

⑥ 전도실시,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태신자 심방전도를 대심방 하듯이 실시한다. 이 주간엔 저녁마다 부흥집회를 갖는 것도 좋다.

⑦ 결정의 날(D-day), 전교인 출석총동원, 전교인 인도 총동원의 날로 총력전도를 실시한다.

⑧ 새신자 환영, 그때 그때마다 새신자를 환영하고 전체 환영회를 갖는 것이 좋다.

⑨ 사후 처리, 태신자 카드에 기록된 명단을 잘 정리하여 계속 추천 전도하고 새신자는 세례받을 때까지 새신자반이나 구역을 통하여 육성시킨다.

3-9

성경연구 및 자기개발

= 건축식 성경연구 =

장 시 준 목사

(한빛교회 담임)

1. 건축식 성경연구의 목적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천국시민”에 대하여 설교하신(마5-7장) 주님은 그 결론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마7:24-27).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 신앙의 집을 한단계 한단계 지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하여 유다서1:20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고전3:10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지어야 할 것이다.

2. 건축식 성경연구의 방법

1) 성경 66권의 목차를 이용하여 2층 집을 지으며 그 내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사적으로 연구하여 성경의 핵심을 개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성경은 모두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다(사34:16)고 한 것처럼 66권의 목차도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짓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3) 모세5경과 4복음서 및 사도행전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하며, 그 위에 두 기둥을 세워야 하고 목회서신 및 빌레몬서로 지붕을 덮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집의 출입문은 반드시 십자가와 같은 “좁은문”(마16:24)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4. 건축식 성경도해의 해설

1) 1층의 도해 해설

① 1층 기초(창세기-신명기)는 모세5경이라고 부르며 신구약 성경의 기초를 이루고 결국 인류의 역사가 요약되어져 있다.

② 1층 우측 기둥은 모두 12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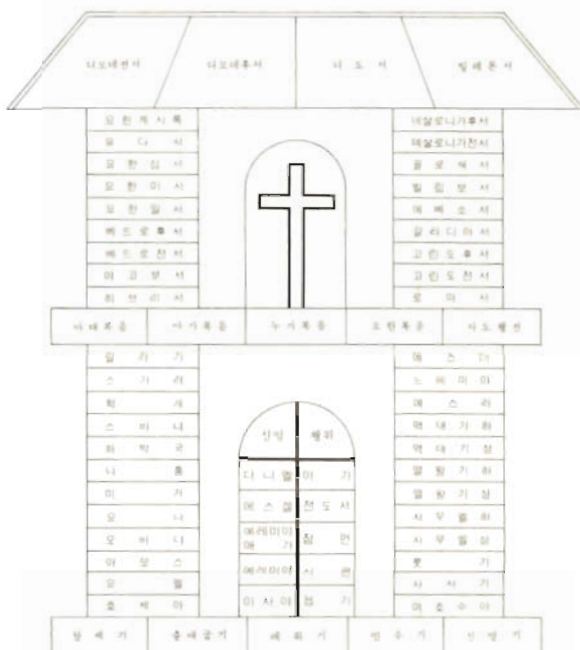
③ 1층 좌측 기둥은 모두 12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른다.

④ 1층 중앙의 왼쪽 문밖은 모두 5권으로서 이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부른다.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신앙”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3. 건축식 성경의 도해

○신구약성경의 구성○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차없이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1,2층의 문을 십자가로 만들고 1층의 문밖 왼쪽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심인 신앙으로 만들고 문밖 오른쪽은 신앙에 따른 “거룩한 생활”을 붙인 것이다. 또한 2층의 문은 좁은문을 표시하는(마7:13-14) 십자가의 문을 붙인 것이다.

⑤ 1층 중앙의 오른쪽 문밖은 모두 5권으로서 이 책들을 “시가서”라고 부른다. 이 시가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몇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신앙행위를 본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2층의 도해 해설

① 2층 슬라브(마태복음-사도행전)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예수님의 탄생과 교훈과 행적을 기록한 4복음서와 교회 확장을 위한 사도들의 활동 속에 나타난 성령의 행적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② 2층 우측 기둥은 모두 9권이다(로마서-데살로

니가후서).

이 9권은 모두 이방 땅의 지명으로 믿음(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소망(데살로니가전후서), 사랑(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③ 2층 좌측 기둥은 모두 9권이다(히브리서—요한계시록).

이 9권은 모두 택한 백성의 인명으로서 믿음(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소망(요한계시록), 사랑(요한1,2,3서, 유다서)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④ 2층의 지붕은 모두 4권으로서 목회서신(디모데전후서, 디도서)과 옥중서신 중 빌레몬서로 되어있다. 목회서신은 교회의 생활 방법을 말해 주며 빌레몬서는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권면한다.

⑤ 2층 중앙의 문

I. 이 문으로 들어가야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

II. 이 문은 어떤 문인가? 이 문은 마태복음 7:13-14에 있는 것처럼 “좁은문”이다.

III. “좁은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다.

IV. “영생”을 얻는 “좁은문”은 어떤 문인가? 이것은 출애굽기12장에 나오는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문”이다.

V. “유월절 양의 피”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고전5:7)이다.

VI.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16:24)고 하셨다.

VII. “십자가의 좁은문”은 어느 단채가 아니라 우



리들의 “신앙생활”을 말한다.

VIII. “좁은문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태복음7:15-27 까지의 좁은문의 생활과 넓은문의 생활을 비교해 보았다.

IX. 넓은문과 좁은문의 비교.

성경	넓은문	넓은문
마7:15	겉 — 양 속 — 이리	겉 — 양 속 — 양
마7:16-20	가시나무 엉성퀴	포도나무 무궁화
마7:21-23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삶
마7:24-27	모래위에 집을세움	반석위에 집을세움

X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한 성경공부가 바로 “건축식 성경공부”의 방법이다.

요한복음—은혜를 받자

—성경강해—

정문호 목사
(신용산교회 담임)

요한복음 도표 설명

총제목: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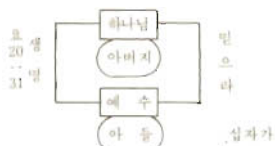
도표 상단 위에 있는 네모꼴 안에 네모와 원형이 있다. 하나님이란 네모 아래 있는 원형 속에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예수란 네모 아래 아들이란 내용이 나온다.

큰 네모 좌편에 생명이란 말씀이 나오고 우편에 믿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은 아들인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 곧 영생을 얻는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혀져 있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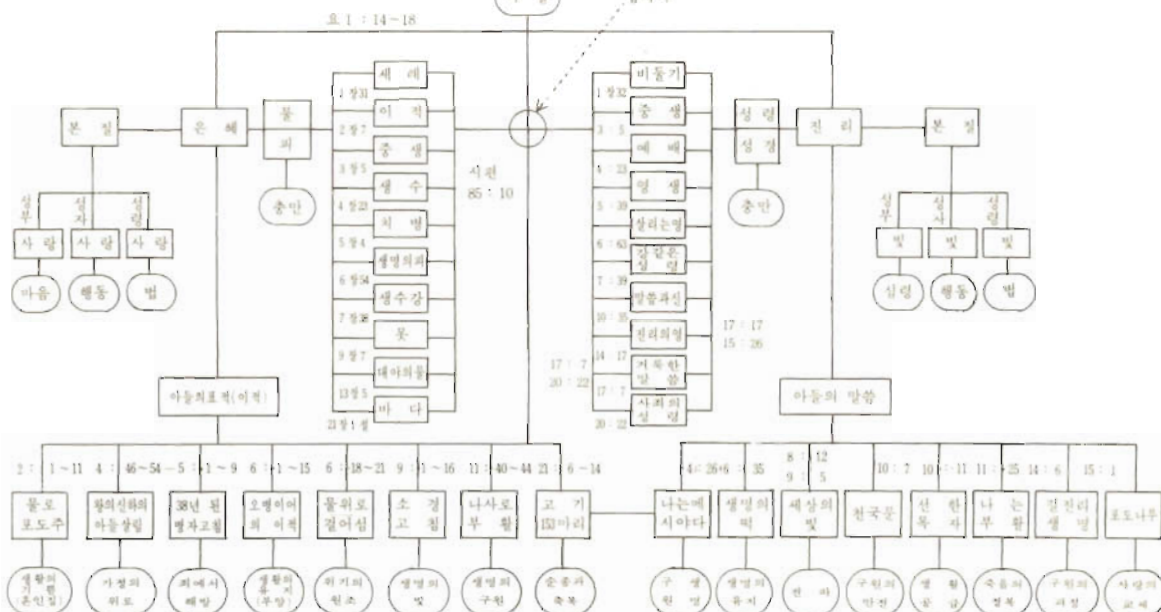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16 절까지의 내용인데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도표의 구성 골자는 은혜와 진리이다. 동시에 요한복음의 요점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다.

선을 따라 좌측으로 오면 은혜란 네모가 있고 선을 따라 긴 네모꼴 안에 아들의 표적(이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은혜가 무엇이나? 하는 은혜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은혜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다. 그러면 어떤 이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느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은혜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는 여덟 가지의 이적의 내용

요한복음 도표공부 (재목: 충만한 은혜와 진리)



요한19장에 십자가란 말씀이 14회 기록
(요 19: 34 피와 물이 나오니)
(요제 22: 1~2)
(에스겔 47: 1~12)



이 기록되어 있다. 밀의 좌측을 보라. 네모꼴 물로 포도주라고 있는 그 아래로 원형 속에 생활의 기쁨이라고 있다. 이 기쁨이 바로 은혜이다. 변화의 기쁨, 이것이 은혜이다. 이런 식으로 디베랴 바다에서 153마리 고기잡은 이적, 이것은 순종과 축복인데 은혜는 순종과 축복인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은 곧 표적인 것이다. 표적이란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표하는(Sign) 것이다.

다시 올라가서 은혜 옆에 본질이라고 기록한 것 아래 은혜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은혜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의 본질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부의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성자의 사람은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는 법으로 역사한다(롬 8: 2-3).

은혜의 충만

은혜의 충만은 무엇으로 표시하고 있는가? 바로 물과 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필요는 물과 피의 필요와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수분(물)과 피는 생명적인 것이다. 물과 피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을 당하고 결국 죽고 만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의 신앙은 죽고 만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은혜의 충만을 각 장마다 물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1장에 세례의 물, 2장에 이적의 물, 3장에 중생의 물, 4장에 생수의 물, 5장에 베데스다 못의 물, 즉 동하는 치병의 물, 6장에 피의 물(마시는 피), 7장에 생수의 강인 성령충만의 물, 9장에 실로암의 못, 13장에 대야의 물, 21장에 디베랴 바다의 물이다. 이렇게 물을 가지고 역사한 역사가 은혜의 역사임을 설명한다.

지금까지 은혜에 대하여 설명했고 우편을 보면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여 진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진리의 본질은 세 가지인데 성부의 빛이요, 성자의 빛이요, 성령의 빛이다.

진리의 표현, 즉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으로 그 나타나는 내용과 성격을 설명하고 그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천국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격은

좌측에 있는 은혜의 내용인 표적과 연결(관계)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고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예수님이 부활이신고로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고로 이적의 떡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고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여 좌측과 우측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측 네모꼴 밑으로 원형 안에 각각 진리의 효과(결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충만이 성령과 성경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여러 장에 나타나 있다. 이

성령과 성경의 나타남을 표시한 것이 중앙 십자가인데 우편에 연결된 긴 네모꼴 안에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요한복음의 가장 근본핵심은 은혜를 충만케 한 물과 피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진리의 충만인 성령과 성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핵심이도 표의 중앙에 명시한 대로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에 대하여 19장 34절에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하락)

총론

심방과 실제



구 명 신 전도사

(새신자 1부 지도)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는 목회자의 능력있는 설교와 조직에 따르는 교육과 이에 뒷받침하는 심방이 3각의자와도 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1. 심방의 기원

최초의 심방자는 하나님 yourself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에덴동산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심방을 비롯하여 바로의 학정 밑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간 모세의 심방, 사랩다 과부의 집에 찾아간 엘리야의 심방, 갈급한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간 베드로의 심방, 바울과 사도들의 순회전도 등은 다 심방에 속한 것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성경 중에는 많은 심방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인류사상 가장 큰 심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심방이야말로 최특대의 틈뉴스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심방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 심방자의 자격(목회자)

- 1) 하나님께 부름받은 확신있는 자
- 2)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있는 자
- 3) 종의 의식(청지기적)이 철저한 자
- 4) 진실성 있는 자
- 5) 청렴한 자(물질적계)
- 6) 침묵성 있는 자



- 7) 인내성이 있는 자
- 8) 근면성 있는 자 등이라야 할 것이다.

3. 심방자의 자세

- 1) 기도로 준비할 것
 - ① 자신의 영력을 위해
 - ② 피심방자의 가정과 목적을 놓고 기도할 것
- 2) 말씀으로 준비할 것(평소에 준비하면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이 나옴)

4. 심방자의 유의할 점

- 1) 옷차림은 인품을 나타낸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교인의 수준의 중간 위치에서 모임의 성품과 시기와 장소에 따라 잘 선택할 것. 같은 날에 결혼식과 초상집에 갈 때는 할 수 없이 중간색(곤색계통)이 좋다.
- 2) 인사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정중히 또 공손하

게(부자에게 아침하면 품위가 없어 보이고, 가난한 자에게 소홀히 하면 섭섭해 한다) 유교에 젖은 어른들은 예의를 갖추어 지켜야 그 사람 쓸만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3) 심방갔을 때에 유의할 점은 ① 자기 소개부터 할 것(○○교회의 ○○○목사입니다) ② 실내에 있는 사람 따라 혹은 남자가 먼저, 혹은 여자가 먼저 들어갈 것이나, 대개는 실내에 여자가 있다. ③ 나올 때는 목사님이 먼저 나오실 것 ④ 좌석은 설교자는 문 쪽을 향해 앉을 것이요, 출입하기 좋은 쪽에 주인집 가족들의 좌석을 마련할 것 ⑤ 간단한 인사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배 시작할 것 ⑥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예배분위기 흐려짐 ⑦ 가정형편과 사정에 맞는 찬송, 성구 선택하여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고 오독이나 되풀이나 한문 틀리게 읽지 말 것(은혜받는데 지장있다) ⑧ 간식 또는 식사가 나올 경우 반드시 감사와 축복하고 들 것이고, 식사 때에는 흘리거나 남기거나 소리내는 일은 될 수 있는 한 조심해서 경솔한 태도를 보이지 말 것.

5. 심방의 종류(충현교회기준)

- 1) 노인심방
- 2) 대심방

- 3) 구역심방
- 4) 유교심방(21개종목)

6. 각종 예식

- 1) 약혼식
- 2) 결혼식
- 3) 60회 생일(회갑이라 안함), 70회생일
- 4) 입관식
- 5) 장례식
- 6) 하관식
7. 기 타

1) 별세했을 때의 임시조치

① 입, 코, 귀, 항문 막을 것 ② 머리, 눈, 입, 손, 발을 바른 자세로 살짝 묶어줌 ③ 깔았던 요를 세번 접어 그 위에 눕히고, 솜이불을 덮을 것.

2) 별세시 준비물

① 탈지면 ② 붓대 ③ 알콜 ④ 크레졸 ⑤ 향수(미안수) ⑥ 창호지 ⑦ 핀셋 ⑧ 가위

◎모든 예식에 따르는 의의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와 의의를 설명하는 서론이 있고 진행에 따르는 본론이 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결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리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까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절.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 합 상 사

261-1188·266-9226

대표 오 정 현 집사
오 정 수 집사

□ 찬송가 감상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
으니 내 잃어 버린 생명을 이
제야 찾았네(1절)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
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곧
기쁨 얻었네(2절)

자비로운 주 하나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새 479장〉

잃어 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
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놀
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찬송은 잃었던 생명을 그리
스도 안에서 찾게 된 것을 발견
하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부르짖
은 한 사람의 신앙고백이다.

그 이름은 존·뉴턴(John New-
ton 1725~1807) 목사다. 그는 한
때 이교도였고, 방탕한 사람이었
으며 아프리카 노예선의 노예였
었다. 그는 30여년간 인간 이하
의 밑바닥에서 온갖 죄악된 생활
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
수를 꺾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변
화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예
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어두워
진 그의 영혼에 비쳐질때 그는여
지없이 거꾸러지고 말았다. 무서
운 악몽에서 깨어난 것이다. 아
니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

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
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
저 놀라울 뿐이다. 이러한 놀라
운 주님의 사랑이 그로하여금 39
세에 목사가 되게 했고 그후 영
국의 올리(Olney)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27년간 묵묵히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내 영혼지
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인
도하시네(3절)

빛나고 높은 보좌앞 주님만 모
시고 할렐루야 노래 불러 큰영
광 돌리리(4절)

이 찬송은 그의 나이 54세되던
1779년에 작시한 것이다.

어찌 이 찬송이 존·뉴턴만의 신
앙고백이겠는가? 어찌 그만이 위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
하고 기쁨을 맛본 삶이었을까?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놀
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예수님
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
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죄로 인하여 쌓였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음으
로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놀
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그
리고 영원토록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김 하 진 목사

〈설가부지도〉

□ 물맷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자기가 지으신 인
간과의 교제를 언제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
간들과 항상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러나 죄로 인하여 그 교제는 끊어지고 말았습니
다.

우리들은 죄를 물리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므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거하
시도록 준비하며 영접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
하여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
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 속에 그
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오직 나의 순종으로 만
이 내 생활 안에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가져 온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 받은 백성을 향하여 원
하시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
다. (갈 2:20)

산업사회 복음화에 초석이 되기를

— 모이면 기도와 성경, 흠어지면 전도 —

「직장에 종사하는 직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칭 산업전도교육부를 신설하고 부장에 황기성 장로, 지도에 홍종만 목사를 임명키로 가결하다.」

이 기록은 1976년 4월 11일 당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총현 25년사에서 옮겨 놓은 기록이다.

산업전도교육부가 첫발을 댈게 된 것은 그후 3개월이 지난 1976년 7월 4일 개교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졌으며 12번째 주일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탄생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의 복음화와 청소년들의 기독교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전도교육부(약칭: 산교부)는 맨처음 39명의 직업청소년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연령군 400~500여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배출하고 있으며 주평균 120명의 출석을 보이는 부서로 성장하게 되었다.

산교부는 시내 각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업청소년들을 그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연령층은 15세부터 25세까지의 남녀 직업청소년들로 되어 있다. 산교부는 그 목적을 1. 신구약 성경에 입각한 신앙교육 2. 직장전도를 위한 각종 활동 3. 면담을 통한 생활지도 4. 회원간의 신앙적친교활동에 두고 회원들에게 말씀을 중심한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7월 4일로 개교 6주년기념 예배 및 행사를 갖는 산교부는 그동안 6개 성상을 지내오면서 근로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는데 교사회에서는 여름수양회, 추석위로예배·추수감사절, 연말에는 청소년 초청집

회 행사들을 통하여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회원들은 면려회를 중심으로 매년 성극발표회·조별성가경연대회·성경퀴즈대회·암송대회·독후감발표회·친교모임 등을 통해 자체내의 신앙인격과 생활훈련에 집중적으로 힘써 왔다.

1982년도 교육목표는 1. 확실히

과 강의와 성경공부와 특별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집회는 토요일 오후 8시에 당회실에서 생활중심의 말씀을 공부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다.

현재 교역자로는 박동신목사, 정관호전도사, 유순화전도사, 부장오정현집사, 부감 한현일, 홍봉작집사 25명의 교사들과 함께 회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산업전도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산교부는 각 직장에 직장예배와 직장 성경공부에도 힘쓰고 있다.

산교부는 선교의 3대어장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산업사회의 직장 직장마다에 복음을 전하므로 직장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



◇ 주일집회후 장충공원으로 전도하러나가는 회원들 모습

배우고 2. 힘써 일하며 3. 끝까지 전하자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 교사와 회원이 일체가 되어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공부를 통해 힘을 얻고 흠어지면 전도에 힘쓰는 부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집회는 주일집회와 토요집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일집회는 매주일 오전 12시 산교부실에 모여서 찬양

비록 주야로 힘써 직장생활 하는 청소년들로 매우 바쁜 가운데 여가도 좀처럼 나지 않는 회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자족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교부 회원들은 뜨겁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민족복음화의 대열에 앞장서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미주 한인 선교대회에 당회장님을 수행하시며 친지를 방문. 귀임길에 홍콩에 둘러 예배 인도하시며 선교업무도 상의하신후 귀임. 오지 장글 선교사역은 순조로움. 성경·찬송가·어린이 찬송가 요청하심.

[기도 제목]

-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
- ② 선교센터 신축의 형통한 추진.

●홍콩—이만렬·엽영택 선교사

[기도 제목]

- ① 홍콩 한인교회 후임자에 중현의 선교사가 임명되시도록.
- ② 한화 협력선교회의 발전과 이만렬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안정.
- ③ 마카오 개척교회와 의료 선교의 발전과 부흥 및 엽영택 선교사님 위해.
- ④ 고 홍종만 선교사님 유가족과 그 남기신 선교사역의 계속적 발전 위해.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스네할라타 사모님이 편도선으로 아팠으나 이제는 쾌차하심. 본부의 활동비 지원받고 힘써 더욱 활발히 일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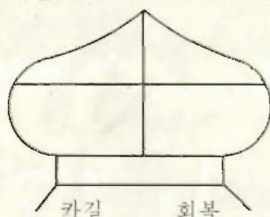
(1) 지난달에는 라다크 상쿠지역에서 여름의 영구적 선교기지 설치를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대지를 물색중이며 너무나 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해 줄 의료센터를 세우

려고 준비하고 있음.

(2) 잠무—카쉬미르지역 최초의 역사적인 교역자 회의를 위한 첫번째 예비모임이 지난 5월27일 열려 실행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졌음.

(3) 계속하여 2,3주간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무 및 감독업무를 대신해 출동역자 위해 기도를 부탁함.

(4) 편지 양식 등에 “카길 회복”이란 “패드”(별도 그림 참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카길 회복”이란 말의 뜻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영적인 회복은 물



인도선교부 “패드”

(초록 색)

론, 둘째로는 수 백가지 잘못된 사회와 육적인 병고 등 여러가지 죄된 상황에서 되찾아야 할 인간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한다. “돔”(둥근 지붕 모양)의 형상은 회교 형제들 속에서의 복음사역을, 십자가는 복음의 깃발을, 그리고 초록색은 회교 형제들이 좋아하는 색이기에 사용합니다. 즉 예수의 증거를 높이 들고 그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나타냄.

[기도 제목]

① 상쿠지역의 영구적 선교기지 설치를 위한 대지 구입과 의료 선교센터의 설립 및 풍성한 선교의 열매 위해.

② 너무나 바쁘고 막중한 책임을 진 선교사님의 업무를 도울 동역자 위해.

③ 선교사님과 사모님 및 어머니의 건강과 안녕 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회복과 활발한 선교사역에 감사.

[기도 제목]

- ① 파라과이 교포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한인교회의 부흥 및 발전.
- ② 인디언 및 현지인 선교의 활발한 추진 및 열매 풍성토록.
- ③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현지도착 하시자마자 6월6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파트를 얻어 이사하셨는데 보통 2개월 걸면 1년도 걸린다는 전화가 사흘만에 나오고 1개월 이상 걸리는 신원증명서(거주증)가 열흘만에 나왔음. 이와 같은 기적적인 주님의 섭리와 함께 가사집기, 자동차 마련되어 짧은 기간에도 풍성한 선교사역 보고를 해 오심.

(1) 성경공부를 지역별로 나누어 불신자회원으로 가입시켜 한인교회 부흥 확장시킬 계획:

(2) 한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주 벨기에에 외교관서를 방문 행정적 지원 약속받고 한글 기초입문 교육용

교재 및 어린이용 그림 많이 들어 있는 동화책을 선물 및 도서문고용으로 본부에 청원.

(3) 6.25동란으로 현지에 입양된 고아 출신 교포가 4~5,000 명이나 된다는 소식과 함께 선교대책 연구 중임을 보고.

(4) 국제 결혼한 교포선교 계획과 함께 특출한 음악 유학생을 중심으로 "선교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출범. 국내에서는 교수급들 수준의 유학생들임.

(5) 가난한 유학생이 많아서 기숙사를 운영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며 선교센터와 훈련소를 사용 가능하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

(6) 현지 활동을 위한 언어교육은 학교에 입학해야만 하므로 브루셀 대학 철학과에서 교육 받도록 추진 중.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불어 교육과 함께 화란어 배우게 되겠음.

(7) 현지 선교의 기반이 될 EC본부(현재 KOTRA 직원의 출입도 금지되고 있음), 나토본부, 상황실출입 및 지하 선교 단체들과의 유대관계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 기도 부탁해 오심.

(8) 150~200명의 교민 사회에의 참여와 전도 열매 위해 노력 중.

(9) 현지 교회가 주로 유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생활비 지원이 부족하여 아파트유지 및 자동차 관리에도 어려움 있으나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힘조요함.

[기도 제목]

① 현지 선교 위한 선교사님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가족들의 건강.

② 한글학교 및 성경공부를 통한 교포사회의 구원과 부흥 발전.

③ 고아입양 교포의 선교와 풍성한 열매.

④ 유학생 기숙사를 위한 협조 및 선교 현지 훈련 센터로의 발전.

●일본—유병세 평신도 선교사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선교사역에 권능

으로 함께 해주셔서 에세고 간호원이 히로이즈미에서 처음으로 출석 예배드리고 이권사님 성경반에서 마루오부인의 2살난 아들의 경련 일으킨것 합심기도로 치유되고 그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강아지 죽인것 또한 기도로 회생시켜 하나님 영광 나타나 결신자들 힘을 얻고 계속 출석중. 주교 선교부 청년들의 편지로 위로 받으시고 여름휴가지 귀국보고 약속하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하나님 말씀 사역 주께서 계속 권능으로 함께 해주심.

② 결신 선교열매의 계속 양육과 더욱 풍성한 열매 위해.

③ 선교사님과 사모님 및 가족의 건강.

●칠레—유재일 선교사

6월16일부터 김창인목사님 모시고 6월23일까지 제직수련회 및 심령부흥회를 거행 150여명이 참석 큰 은혜받음. 겸하여 칠레장로교 총회 인사 세분과 인사나누고 한국교회 소개 및 장래의 일들을 의논함.

(1) 새성전 부지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칠레인을 위해 현지인 교역자를 두고 예배드릴 시간 마련 중.

(2) 다닐로 로데스 목사님을 초청 개척 교회현황 소개받고 유익한 대화.

(3) 교민사회가 조금 복잡한 사건으로 어려운데 교회안정 위해 기도 부탁하심.

[기도 제목]

① 교민사회의 안정과 교회의 부흥발전.

② 현지인 선교의 길 더욱 넓어지고 풍성한 열매 위해.

③ 수재당하여 고난당하는 칠레인들을 위해.

●서독—육호기 선교사

[기도 제목]

① 뷔츠브룩·하나우·비스바덴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②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위해.

③ 한독 찬송가 선교 수양관위해

●서독—박용삼 평신도 선교사

[기도 제목]

① 박사 논문의 통과와 장래 선교준비.

②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과 안정위해.

●호주—김태현 선교사

[기도 제목]

① 사모님의 병환 회복과 선교사님 가족의 안녕과 건강 위해.

② 선교현의차 연말에 귀국하시는데 장래 선교의 길 형통하시도록.

●애굽—이준교 선교사

[기도 제목]

① 더운 기후속의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 위해.

② 어학공부의 진보와 현지인 지교회 후원등 선교의 열매 풍성하도록.

③ 한인교회, 한인학교 및 현지 한인 진출 기업의 전도열매 풍성과 발전 위해.

●알헨티나—백성룡 선교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안정위해.

② 알헨티나 정치, 경제의 안정과 한인교회의 안정 및 부흥.

③ 현지 선교의 길 널리 열리도록.

●본부 소식

(1) 사우디에 나가 계시는 알명수, 김동표 성도께서 현지 선교보고 및 감사의 문안편지 도착.

(2) 총회파송 비율빈 선교사 김유식 목사님께서 당회장님 앞으로 선교보고 서신 보내오심.

(3) 동서 선교 연구개발원에서 제10회 하기 선교대학원 안에서 및 선교후보자 2명 추천 의회해 오심.

강도사고시 221명 합격

— 총회고시부, 지난 6월 15일 시행

총회 고시부(부장 양동원 목사)가 실시한 82년도 강도사고시에 221명이 합격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6월 15일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실시한 322명 중 221명이 합격되었음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이들 합격자는 오는 9월 제67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전국교역자 여름수양회

— 목사·사모 등 2백50여명 참석

총회교육부(부장 배순조 목사)가 주최하는 제12회 전국교역자 여름수양회가 7월 6일부터 9일까지 부곡관광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백50여명의 전국 목사 및 사모가 참석한 동수양회에서는 「갑질의 영감을 주옵소서」란 주제로 새벽기도회, 특강, 저녁부흥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김종석, 정성구, 정문호 목사 및 최성원, 배순조 목사 그리고 송영숙 여인성전도사가 맡았다.

홀트아동복지회 초청

—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 한규 장로)를 통해 해외에 입양된 아동중 47명이 처음으로 고국땅을 밟고 고국의 발전상을 보고 감사해 했다.

6·25동란 이후 지금까지 27년동안 동회를 통해 해외에 입양된 이들을 단계적으로 모국 초청사업을 펴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제1차로 미국과 노르웨이 생년 입양학생 47명을 초청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해외에 입양되어간 이들에게 조국의 참 모습과 발전상을 보여주어 조국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국에 대한 긍지와 뿌리의식을 심어주며, 판문점 및 제3땅굴을 방문함으로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반공의식을 고취양양시켰다.

경찰선교 활성화점검

— 서울교경협 세미나 열어

서울 교경협의회(회장 오진주)는 지난 6월 21~23일까지)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제5회 경목세미나를 가

졌다.

「새 시대를 향한 특수선교」를 주제로 회집된 동세미나에서는 경찰선교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히 국제강연의 이중성박사는 「새 시대라 함은 세속시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대이기에 복음의 전달방법이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복음의 전도방법으로는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휴머니즘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핵환자 자활촌 건립호소

— 기도회열어 사랑의 실천 다짐

결핵환자 자활촌건립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6월 22일 오후 코리아나 호텔에서 있었다.

이달 기도회에서는 5천만 동포가 복음화되고 세계복음화 달성과 잃어버린 형제를 기억하며 고난당한 형제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특히 결핵환자의 자활을 위한 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간구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84만명의 결핵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찬송가 통일에 진일보

— 위원 2명 증원 결의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이영수, 박봉배)는 지난 6월 28일 오후 5시 기독교서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송가위원회추에 2인의 대표를 공회에 추가 파송하도록 결의했다.

그간 위원수 증원에 대하여 통합측에서 계속 찬송가발행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번 2인 증원으로 다소 막혔던 대화가 터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찬송가 판매이익금은 각교단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찬송가 협의회에 의해 교세별로 이익분배를 관장토록 했다.

교단산하 여름수양회 안내

여름철을 맞아 총회산하 각 단체가 수양회 및 대회를 갖는다.

△ 전국 C. E = 8월 2~6일 목포 △ 전국여전도연합회 = 8월 3~6일 충신대학 △ 전국 SCE = 8월 9~12일 김천 △ 전국주련 = 8월 10~13일 무주구천동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케하는 이
 먼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을 불수록 더욱 그리하시라"(히 10:24, 25)

6월의 새 교우

● 1지구

미아3구역 박전기
 동선 구역 최종수
 제1구역 양 호
 도봉3구역 임길모
 길음3구역 김희섭
 삼 성 구역 주영면
 상계2구역 송기식
 월 계 구역 오세한
 중 암2구역 봉순길
 상선2구역 경기욱
 장 동 구역 송효은
 동소문2구역 윤춘옥
 용 두 구역 노영한
 정능1구역 최준식
 길음2구역 이승오
 월 곡 구역 조종덕

● 2지구

묵동1구역 공인덕
 구의3구역 김승진
 묵동1구역 노경권
 면목4구역 황선경
 홍 익 구역 이병연
 구의2구역 유명수
 중곡3구역 안금순
 면목1구역 배충웅
 면목6구역 백범열
 면목6구역 이호영
 홍 익 구역 김삼재
 홍 익 구역 김태원
 둔촌2,4구역 심정태
 중 화 구역 정은하
 중 화 구역 이용문
 묵동2구역 김인호
 면목6구역 고영진
 화 경 구역 김숙희

황 학 구역 이영준

● 3지구

문 화 구역 이영철
 성림1구역 송진욱
 악수2구역 고관중
 김유호
 신당3구역 박성기
 신당5구역 오정숙
 시영1구역 박근우
 경림3구역 원용애
 장중4구역 강영수
 성 원 구역 김부욱
 잠실2구역 권영욱
 잠실4구역 송영준
 문 화 구역 김은민
 성수2구역 김진갑
 신당1구역 이훈복
 성림3구역 고경환
 장중4구역 강남순
 잠실3구역 이상훈
 신당5구역 윤명자
 광화문2구역 이종두
 시영3구역 유은옥
 잠실3구역 박현식

● 4지구

한남2구역 김현국
 옥수1구역 행차남
 성남2구역 최정웅
 논현2구역 김동원
 전 성 구역 김종훈
 역 성 구역 김선수
 잠당3구역 임순재
 청당3구역 이영조
 청당3구역 박종근
 성남1구역 차정호
 성남1구역 정오성

성남1구역 김철호
 영 동 구역 윤형중
 청담3구역 박명숙
 성남1구역 이광호
 목정3구역 김근식
 세 곡 구역 김원용
 금호2구역 오세문
 옥수1구역 홍양식
 금호3구역 서덕식
 금호3구역 박정린
 선정2구역 정상구
 학 동 구역 강대익
 옥수2구역 반안정
 금호3구역 김동의
 양 재 구역 유대열
 청담2구역 남순악
 논현2구역 박창식
 한남2구역 박재호

● 5지구

인양2구역 조세영
 필동7구역 하옥순
 화곡1구역 한용덕
 필동6구역 강준식
 필동8구역 임운문
 선 길 구역 유대열
 후암1구역 박명근
 서 초 구역 이용인
 필동7구역 강진식
 인양2구역 이은성
 필동9구역 안형모
 인양1구역 이종노
 인양2구역 원태교

회 현 구역 강용원
 필동1구역 김창영

● 6지구

구 로 구역 홍산옥
 용 문 구역 이수만
 문 래 구역 김한성
 마 포 구역 김복조
 역 곡 구역 박정환
 인현2구역 유진남
 목 동 구역 김동수
 역 곡 구역 한삼순
 철 파 구역 이상순
 인현1구역 조창숙
 인현1구역 노수정
 성 산 구역 김병익

● 7지구

장신3구역 신도빈
 을지3구역 송연빈
 을지2구역 유순남
 홍재1구역 박승남
 오장2구역 김철애
 오장1구역 최형근
 오 장 구역 박홍규
 오장2구역 최동선
 오 장 구역 한성섭
 장신4구역 송화재
 장 신 구역 고수식
 갈 현 구역 박진영
 장신3구역 조준복
 서대문구역 서상종

- 오준근군(제1성가대원)과 김수경
 양(제1성가대원) 19일
- 이신영군(청능구역)과 김정효양
 (제2성가대원) 26일
- 이보경양(이영세 이인도 집사 딸)
 26일

별 세

- 김호식집사(공항1구역) 5일
- 김기환씨(김기철 · 안춘자집사 부
 친) 7일
- 안현모씨(필동9구역) 24일

이 민

- 홍원진(구역3구역) 서숙유학
- 윤희순(역촌2구역) 도미
- 김승미(성계1구역) 도미
- 황영실(효자구역) 외국

직원동정

전도위원회 직원 최진숙양 7월17
 일(토)오전 12시 본교회당에서 결
 혼.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
 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
 자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
 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
 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
 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
 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
 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
 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
 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
 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
 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결 혼

- 심정태군(심인경집사 이의복권자
 아들)과 박은주양 7일
- 강연수군(강진명씨 김상순권사 아
 들)과 궁미경양 12일

교회소식



제3차 성례식 거행

교회는 82년도 제3차 성례식을 지난 11일 거행했다. 8일과 9일 문답에 이어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이번 학습문답을 받은 사람은 74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받은 성도는 111명이다. 이어서 11일 주일에배시에는 전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찬식이 베풀어졌다.



농어촌 교역자 수련회 개최

제8회 농어촌 교역자 수련회가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본교회 기도원에서 개최됐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제하의 표어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4박5일간 개최된 동 수련회에는 목사 90명, 전도사 47명, 강도사 17명 그리고 장로 1명 등 전국 농어촌에서 165명이 참석하여 은혜중에 수련회를 마쳤다.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다음과 같다.

장정일 목사(전도전략)
구명신 전도사(심방과 실재)
민정웅 목사(농촌교회의 자립책

및 부흥의 요건)
장시춘 목사(성경연구 및 자기개발)
정문호 목사(성경강해)

유·초·중등부 종합우승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지난 6월19일 후암제일교회에서 주최한 제5회 성경퀴즈대회에서 본교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지난해에 이어서 2연패를 이룩한 동대회에는 총 14개 교회에서 100팀, 200명의 선수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같고 닮은 성경지식을 겨뤘는데 최우수상 역시 본교회가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다. 본교회 유·초·중등부 소속 선수의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년부 퀴즈왕 : 박용진
1학년 1등 : 양현준, 정성민
2등 : 박승준, 박현주
2학년 1등 : 박정언, 이호성
2등 : 이신주, 유현정
3학년 1등 : 박용진, 김영애
2등 : 권오진, 장운정
초등부 1등 : 이재원, 최요셉
2등 : 박동현, 장경석
3등 : 유승림, 이복희
권오명, 최경민

중등부 퀴즈왕 : 신명희
1등 : 김양선, 신명희
2등 : 김승태, 명성숙, 이진원
3등 : 최윤실, 이민재

심령과학의 정체 특강

본교회 남전도회가 주최하는 "심령과학의 정체와 성경적 비판" 제하의 특강이 지난 7월11일 오후4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강사는 주영훈박사(건국대 교수).



해외의 충현교우들 새성전 건축에 관심

김기정장로 도미(渡美)시 모임

해외거주 충현교회 교우들이 새성전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에 협조할 뜻을 가지고 있다.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가 지난 6월 8일 친지방문차 미국에 들러 귀국하는 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충현교우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6월 19일 오후 8시 로스앤젤레스의 지구집집사 사무실에서 재 로스앤젤레스 충현교우 20여명이 모여 홍수정장로의 사회, 김영휘목사의 성경봉독, 김기정장로의 기도, 조철일목사의 설교로 감사에 배를 드린 후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가 「충현교회 새성전 건축 현황」을 설명하고 서로간에 새성전 건축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갖고 참석한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기로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홍수정장로와 김성주집사가 하도록 결정했다.

제4기 하기선교훈련 실시

주일학교 선교부는 오는 8월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소재, 재인교회에서 제4기 「하기선교훈련」(선교가족수련회)을 실시하게 된다. 약 120명의 회원이 참가하게 될 동 훈련에는 오치용 목사가 주강사로 「일어타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는 주제로 강의(유다서강해)가 배풀어지고 오전에는 선교세미나, 오후에는 5개 지역팀(아시아·태평양지역, 중동·아프리카지역, 유럽지역, 북미지역, 중남미지역) 토론회 및 체육대회와 축호전도가 실시된다.

마지막 날에는 본교회 형동 선교사인 「켈」 목사 주관하에 캠프 프로그램이 강변에서 실시될 예정인

대 특기할 사항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소속 선교후보생 2명이 참석하여 동 훈련을 지원할 것이다.

제2차 전도특공대 훈련

제2차 북한선교 전도특공대 하기 훈련이 7월19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북한선교훈련원에서 개최된다.

세례교인으로서 북한선교 및 전도훈련에 관심이 있는 성도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2차 훈련에는 1주코스 318명을 모집(신착순)하여 성경공부, 전도훈련, 양육훈련, 경건훈련, 체력훈련, 금식훈련, 기도훈련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회비: 10,000원 = 교통비 5,000 + 주식비 5,000)

서해안 초소 방문

전도위원회 특수분과에서 6월 6일 현충일에 서해안 초소를 방문하여 O.C.U. 헌신예배로 인도하고 해안초소를 방문위로한 후 전도집회와 전도영화를 상영했는데 박동실 목사님과 김영근 집사님, 현홍식 집사님이 수고했다.

도서실동정

본교회 도서실에서는 주일학교교사들의 원활한 도서대출을 위하여 7월 한달을 도서대출증 발급기간으로 정하였다.

도서대출증을 발급받기 원하는 교사는 본교회 도서실로 오셔서 발급받기 위하여 아울러 미반납된 모든 도서도 이 기간내에 반납하길 바란다.

□인사이드

1. 교육위원회

① 임명

초등부 최효임 임시교사

중등부 이상석 임시교사

② 휴직

어새부 박광석 정교사(신병)

③ 퇴임

어새부 문광석 정교사(해외취업)

어새부 장병화 임시교사(직장)

어새부 김정자 정교사(결혼)

영아부 백화순 정교사(이민)

□토막소식

◇ 82년도 춘계 대심방이 은혜중에 완료됐다. 모두 7지구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심방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 총 4,397 세대를 심방하였다.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세미나가 지난 7월12일 오후7시 당회실에서 선교정책 제반을 점검 토론하기 위해서 모였다.

◇ 산업전도회는 매월1일 오전 6시30분 유년부실에서 산업전도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실시한다. 특히 동전도회 의료분과 위원회는 지난 6

월28, 농어촌교역자수련회에 참석한 교역자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했는바 내과, 치과, 피부과, 한방과 등의 진료를 통하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임시교사 특별훈련이 지난 6월7일부터 7월1일까지 총 24시간 실시되었다. 이번 특별훈련에는 56명이 등록하여 41명이 최종 수료하였고 이 가운데서 16명이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각 종 통 계

1982. 6. 6
(매월첫주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주 일 낮	I 부	211	382	총세대수	
		II 부	449	1,088		
		III 부	411	710		
		IV 부	186	422		
		V 부	160	396		
배	주 일 저 녀	249	559	808	교인 총수	남 4,144
	삼 일 저 녀	178	480	658		여 6,015
주 일	어린이새신자부	11	41	52		계 10,159
	영 아 부	224	178	402	세례입교	남 2,272
	유 치 부	137	151	288		여 3,782
	유 년 부	212	218	430		계 6,054
	초 등 부	211	213	424	유아세례	남 631
	중 등 부	178	186	364		여 518
	고 등 부	119	140	259		계 1,149
	대 학 부	80	64	144	학습교인	남 329
	청 년 부	55	104	159		여 427
	장 새 부 I	44	112	156		계 756
학 교	장 새 부 II	36	99	135	원입교인	남 912
	장 년 부	27	276	303		여 1,287
	노 년 부	53	118	171		계 2,199
	산 업 교 육 부	18	92	110	합	남 3,298
	선 교 부	33	84	117		여 6,147
새 가 정 부		16	34	50		
합 계		3,298	6,147	9,445		

7월의 행사

◇ 교회

9일/전체철야기도회

30일/정기당회

◇ 예배위원회

8~9일/성례식

11일/성찬식

13일/여성성가대 수양회

◇ 전도위원회

1일/산업전도회 조찬기
도회 및 월례회

11일/남전도회 월례회

14일/여전도회 임원 철야
기도회

18일/제1여전도회 월례회

18일/선교회 실행위원회

25일/전도위원회 월례회
/제2여전도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18일/교육위원회 월례회

14~17일/청년부 수양회

21~24일/대학부 수양회

26~29일/어새·유·초·중

등부 계절학교

28~31일/산교부 수양회

◇ 심방위원회

4일/제직회

/권사회 월례회

7일/권사철야기도회

11일/권사회 월례회

18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5일/구역권찰회의

◇ 건축위원회

25일/건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18일/자산관리위원회 월
례회

◇ 재정위원회

18일/재정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25일/월간 충현 7·8월호
발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조 현 명

편집위원/

김 하 진 조 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중 수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7·8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7호

통권 제101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7월 20일 인쇄

1982년 7월 25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편집부장/장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260-3407·3408

편집후기

◇ 해마다 맞이하는 계절학교가 형식적이거나, 그저 구호에 그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여름 행사」에 관한 특집 ①을 구성했다.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 초청수련회를 본교회 기도원에서 개최하고 그 내용을 제2특집으로 실었다. 집필하여 주신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린다. 아직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도와 나가야 하겠다.

◇ 이제 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무더위와 더불어 싸우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농

부들이 그렇고, 전방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국군용사들이 또한 그렇다. 그뿐이라,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산업전선에서 땀 흘리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교회와 성도들은 이번 여름에도 시원한 산이나 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1년중 단 한번 뿐인 휴가를 계절학교를 위하여 바치는 희생적 봉사정신의 슬기를 가꾸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유난히도 무더운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물론, 전국교회의 계절학교에 출선수범하여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빈다.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제8회 농어촌교역자 초청수련회에 참석한 교역자전원이 기념촬영한 모습



◇ 82년도 제3차 성례식에서 문답하는 모습



◇ 벨기에로 떠나는 김성완선교사 가족이 배웅하는 해외복음선교회원들과 김포공항에서 출국기념촬영



◇ 본교회 전도위원회에서 ○○부대를 방문, 군중훈련을 마치고 기념촬영 (중앙이 박동실목사)



◇ 7월 첫주부터 4부에서 5부로 드리게 된 영아부의 예배모습, 정소영전도사가 설교하고 있다.



◇ 성경연구원 제1학기 수료식이 지난 6월27일 거행되었다. 사진은 「월요일 낮반」의 성경공부 모습이다.

옥토에서 거두는 수확은 얼마나 놀라운가

9
농부는 푸른 밭을 쟁기로 갈며
쟁깃날은 날카롭고도 빈틈없으나
괴롭과 아픔없으면 열매를 얻지못하나
곡식을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한다오 —
하나님은 뜻과 목적과 계획없이
우리 영혼의 밭 가시는 일 없으니
날카로운 쟁깃날 느낄때 마다
그대 가슴 쓰려도 부서워 마오
하나님은 농부와도 같이 그지없는 수확이
내다보이는 그런 밭을 고르시니 —
가슴 비록 둘로 이랑 날지라도 기뻐하오
하나님은 그대 밭에서 넘치게 거두려 하신다오

—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이 책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